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41 1983년 1월 27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January 27, 1983

JAN 28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illegible]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南北統一 장애물은 모스크바"

蘇 적극반대·北韓側 사고방식으로 현단계선 어렵다

제랄드포드 전미국대통령은 본보기자와 단독 특별인터뷰를 갖고 한반도의 정세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다. 팜스프링스의 랜초미라지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지난 20일 하오 3시30분 가진 이 특별인터뷰에서 포드전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왜 어려운가와 미군의 한국주둔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카터의 주한미군병력 일부철수가 미국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은 한반도의 현실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이때문에 한국에 대한 방위개념이 한때 흔들렸음을 비쳤다. 포드전대통령과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관계기사 3면에〉

포드前大統領 팜스프링스自宅서 특별인터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한국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차이점은 무엇인가.

▲포드-차이라고 지적할만한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 미국의 대한국정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전쟁지원군」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예방군」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귀하가 74년11월 한국을 방문했을때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후 카터는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키겠다고 들고 나왔다.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서자 다시 주한미군증강을 발표했다.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출신대통령이 한국방위개념을 달리한 뚜렷한 증거가 아닌가.

▲포드-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라기보다는 역대대통령중 카터가 좀 의견을 달리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그는 카터얘기가 나오자 약간 억양을 높였다). 나와 그는 한국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달리했다(totally different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주한미군강화만이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고 전쟁발발에 브레이크를 걸수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주한미공군력강화를 나는 중요시했다. 그러나 카터는 한국방어개념을 달리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약속을 해놓아 필요이상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카터는 미국이 지고 있는 이 짐의 일부를 줄여도 한국방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그의 큰 실수였다. 주한미군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카터도 나중에는 자신의 한국정책을 후회했다.

◆후회했는가

▲포드-(약간 망설이면서)카터는 한국정책을 나중에 수정했다.

◆레이건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첫 손님으로 전두환대통령을 초청했을때 미국정계에서는 놀라움을 표시했다. 레이건은 왜 그와같은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포드- 카터의 한국정책과 한국내의 변화가 겹쳐 미국이 무엇인가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것이 시급한때였다.

특히 레이건은 북한의 반응을 계산했던것 같다.

◆귀하가 키신저(당시 국무장관)를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했을때 박정희대통령에게 국내정치(긴장)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표시를 한적이 있는가

▲포드-나는 한국국내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희망하는 바를 표시했다.

◆박대통령의 반응은

▲포드-그는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을 읽을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무언의 반응을 보였다.

◆귀하는 당시 한국을 방문한후 바로 우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 브레즈네프와 미소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소련과 중공이 한국을 승인하면 미국도 북한을 승인하겠다는 한반도의 교차승인을 논의한적이 있는가

▲포드-나는 브레즈네프와 두번 만났으나 한반도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교차승인원칙을 중공지도자와 그후 논의한적이 있는가.

▲포드-전혀 없다.

◆전두환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제의한 남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포드-그것은 성공여부를 따지기전에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좋은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다.

◆무엇이 장애인가.

▲포드-북한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다(그는 남북회담이 어려울것이라는 제스처를 보였다)

◆한반도의 남북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포드-현단계로는 요원한 얘기다.

◆귀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포드-(심각한 표정을 지으며)소련이 그것을 원치않고있다. 나는 소련이 남북평화통일을 적극반대한다는것을 알고있다.(그는 어떤 정보판단위에서 그와같은 결론을 내리게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먼 훗날에 할수 있는 얘기다.

◆「두개의 한국」이 존재할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뜻인가.

▲포드-(웃으면서)' 이미 두개의 한국이 존재하고있지 않는가.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할것으로 보는가.

▲포드-(말없이 가만있다가) 그것도 당분간은 어려운 이야기다.

◆레이건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여러면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택한것같다. 레이건의 임기가 끝날경우에도 이와같은 정책의 흐름이 계속될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는가.

▲포드-레이건이 재선이 되든 안되든, 또는 공화당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든 안되든간에 미국의 대한국정책은 별로 변화가 없을것으로 본다.

▲랜초미라지에 있는 자택에서 본보(LA지사) 이철 편집국장과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는 포드전대통령. 그는 한반도정세 전반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현대, 현지법인 승인받아

포니의 북미진출 길 열려

(토론토25일=연합)캐나다연방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회(FIRA)는 지난주말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캐나다현지법인 설립과 현대제품인 "포니"승용차의 캐나다시장 판매허가를 정식 승인하였다.

이로써 현대는 토론토에 자본금 60만달러의 현지법인을 설립, 영업을 할수있게 되었고 또한 무역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다.

현대는 따라서 북미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최초의 한국회사가 되었다.

〈관련기사 2면〉

김대중씨 수기 오늘부터 2면에 연재

쇼핑 지나친 해외여행자 과중관세 부과

전대통령 지시

(서울26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26일 해외여행에서 지나치게 많은 상품을 을 갖고 귀국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엄중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관세청 연두순시에서 전대통령은 현재 김포국제공항에 있는 1개 입국조사실로는 신속한 입국처리가 어려울 것이므로 조사실을 1개 더 신설토록 했다.

전대통령은 세관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강화, 언어장애로 인해 세관업무의 불편을 피할 것과 지금까지 정보기관원에만 의존해오던 관세정보를 앞으로 해외외교관, 치안본부및 그 밖의 정부 부처와의 협조체제로 습득토록 지시했다.

◆정희수 박사

복합문화 자문위원에 몬트리얼 정희수박사

(몬트리얼=정관섭 지국장)몬트리얼 한인회장이며 [illegible]대학 교수인 정희수(도시경제학) 박사가 최근 연방정부 복합문화성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정박사는 복합문화성의 사회·문화적응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7명중의 1명으로 오는 29일과 30일 2일간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비공개회의에서 "한국이민의 적응"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합문화성의 정책수립을 자문하는 이 자문위원제도는 73년 시작된 것으로 현재 공용어, 교육, 연방기관및 복합문화, 사회·문화적응등 4개 분파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무보수로 봉직한다. 총 위원수는 50여명이다.

한국인으로서 현재 L.A.에 있는 고종옥 신부와 오타와의 유태호 박사가 자문위원을 지냈었다.

오늘의 예금금리(1/7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5%		8%
90일	10%		8.5%
180일	10%	9.75%	8.5%
365일	10%	9.7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란콤화장품 대리점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드디어 판매개시!
감가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원심식 전자동 가습기

지방에 계신 분을 위해서 Mail order를 받습니다. 물건값+송금료를 수표로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격 ——— US$79
카나다 $105 (+송금료)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가습기 원심분무식
Humidifier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낌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 (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판매처
ㅇ아세아한약방 ㅇ고려식품 ㅇ삼복식품 ㅇ서울식품(동부·서부·해밀톤)
ㅇ제일식품 ㅇ한국식품(본점·동부·서부·미시사가) ㅇ한밭식품 ㅇ한인식품
ㅇ미도파백화점 ㅇ동양식품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시험관아기병원 토론토에도

「온」주 최초…2월1일개원

온타리오주 최초의 시험관아기병원이 2월1일 토론토동부종합병원(Toronto East General Hospital)내에 개설된다.

시험관아기병원에 근무할 4명의 부인과 의사중 한명인 무레이·크로치박사는 이병원의 개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28일 병원측에 의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관아기병원이 퀘벡주와 BC주에는 이미 설치되었으나 아직 성공적인 임신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브라운양이 78년7월 영국에서 태어난 이래 세계각국에서 200여명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오크빌에 거주하는 키트·헨킨씨(35세)와 그의부인 게스틴씨가 지난해 쌍동이 시험관아기의 부모가 되었으나 이식절차는 영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캐나다에서 분만된 기록은 없다.

의사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에는 수백명의 부부가 시험관임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쌍동이 시험관아기가 탄생했을 당시 마운트·시나이병원의 잭·슈버박사는 시험관임신 대기자명부에 300쌍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30일 수퍼·보울결전 앞두고

도박사들 돌핀승리 점쳐

오는 30일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열릴 대망의 수퍼·보울 17 경기에 앞서 이 게임에 출전권을 획득한 마이아미·돌핀과 워싱턴·레드스킨은 서로가 승리를 장담하면서 최후의 팀 전력을 점검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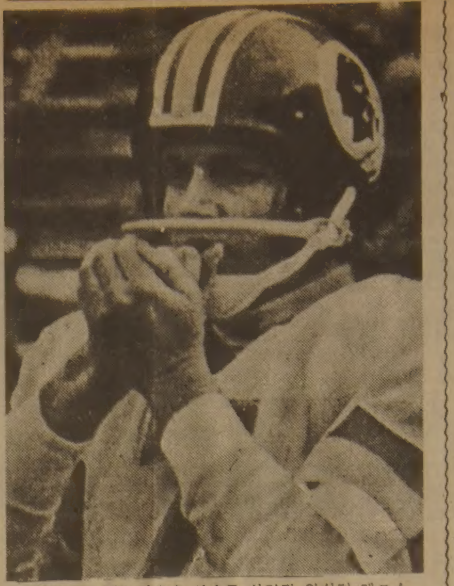
레드스킨은 10년전 수퍼·보울에서 돌핀에게 14대7로 패한 경험이 있고 작년도 시즌에서도 13대 10의 근소한 차이로 패한 바있어 정신적으로 위축받는 입장이지만 이번엔 꼭 설욕해야 한다는 투지로 임하고 있다고 말한 팀코치 조·깁스씨는 또한 "우리 선수들은 매 순간의 기회를 잘 포착하고 중요한 상황판단이 빠르다"면서 지난주일 달라스·카우보이를 제압한 때의 돌풍을 상기시켰다.

한편 돌핀의 코치 돈·슐라도 흥분한 어조로 승리를 장담하고 지금 그의 팀은 상대팀의 경기필름을 보면서 공수전략을 수립하고 언제나 격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10년만에 수퍼·보울에서 재상봉케 된 두 팀은 모두 수비위주의 팀으로 서로 "금년이 최상의 해, 소원을 이룰 때"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많은 도박사들은 돌핀이 금년 수퍼·보울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한편 NFL은 금년도의 최우수 선수로 워싱턴·레드스킨의 쿼터백인 조·메이스만 선수를 선정했다.



◆금년도 NFL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워싱턴·레드스킨의 쿼터백 조·메이스만 선수.

사진협회 총회 2월4일로 연기

캐나다 사진협회(회장 전경수) 83년도 총회가 오는 2월4일(금) 하오7시 토론토 음식점「한국관」에서 열린다.

총회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다른 교민행사가 많이 중복되어 2월로 연기됐다.

와이즈맨즈 총회 양로원문제등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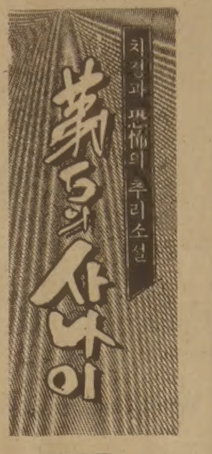
토론토 한인와이즈맨즈(Y's men's) 알파·클럽 정기총회가 28일(금) 하오6시 천중환 회장댁(6042 Paddle Rd, mississauga)에서 열린다.

안건은 사업및 결산보고, 신임회장단 선출, 양로원건립단체의 일원화등이다.

한인 와이즈맨즈클럽은 한인YMCA산하의 봉사단체로 나이에 따라 40대전반 회원이 주요멤버인 알파클럽과 40대후반 회원을 주로한 베타클럽으로 구분된다.

알파·클럽은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회장 천중환)를 구성한 모체이기 때문에 양로원건립을 별도로 추진한 다른 한인단체들과의 통합문제가 이번 총회의 의제가 된다.

金聖鍾작



<157>

이상한 女人 ②

『내 비밀을 알고있다고?비밀이라니。무슨비밀 말이야?공연히 사람 [illegible]하지마。』

그녀는 [illegible]거리며 쏘아붙였다。

『흥, 잡아떼시는군。무슨 비밀이냐구?꼭 내입으로 말해야될까?살아시면서 그러셔。살인자는 사형이란거 몰라?』

『너…너…뭐라고 했어?』

그녀는 한손으로 이마를 짚었다。곧 기절할 것만같았다。

『잘못 알아들으셨나。살인자는 사형이라고했어。더구나 토막살인자는 정상의 여지가없지。남편몰래바람 피우다가 결국 정부까지 살해했으니 그죄는 백번죽어 마땅하지。안그래?』

문자는 부르르 떨다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공세를 취해보았다。

『미친년, 생사람 잡지마! 도대체 무슨 소릴하는 거야? 미친년,어디다가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 누구니? 누구야? 말해봐! 말해보란 말이야!』

『훗, 되게 웃기시는데, 발버둥 쳐봤자 소용 없을걸。』

『이 미친년, 아가리를 찢어 놓을테다!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따위 말을 하는거야?』

그녀는 길길이 뛰었다。그러나 상대방 여자는 여유만만하게 나오고 있었다。

『모세(某氏)를 모른다고는 말못할테지。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12시정각에 전화공중으로 나와。물론 혼자 나와야지。남자를 데리고 나오지 마。전화부 입구에서 만나는거야。나는 당신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내 얼굴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전화 한통화면 당신은 지옥행이야。잘 알아서 기어。』

문자가 뭐라고 말하기도전에 전화가 철커 끊겼다。

그녀는 털썩주저 앉았다。

한참 넋을잃은채 앉아있다가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꼭꿈을꾸고있는 기분이었다。꿈이라면 그것은 악몽이었다。너무 충격이큰 나머지 그녀는 생각을 정리해볼 기력도없었다。

그녀는 비틀비틀걸어가서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머리가 빙빙 돌아가고 있었고 가슴은 계속 방망이질을 해대고 있었다。몸을 그렇게 떨면서도 입안이 다시 타들어오고 있었다。

어떤 년일까?

어떤 년이길래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전화를 했을까?

한참후 그녀는 비로소 생각을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 짓인지 알수가 없다。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세상에 단 두사람 뿐이다。오빠가 누구를 시켜서 그런전화질을 했을리는 없다。경화일까? 경화이 입부터 떠보는 것일까? 아니야。그럴리는 없어。경화는 아니야。경화이 그렇게 빨리 알아낼리가 없어。경화는 지금 나를 추적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생각난듯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 일 났어요-!』

그녀는 허둥거리며 말했다。

朴 男 그림

"내비밀 안다고…공연히 사람잡지마"

"예수는 조작이다"

UT분교 강좌내용 물의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의 미시사가 분교인 에린데일대학 야간과정에 예수그리스도는 "조작"이었다라는 강좌를 넣은 것에 대해 교계의 찬반이 크게 일고 있다.

미시사가지역에 배부된 광고전단에 의하면 2월2일부터 "종교적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10주간에 걸쳐 실시될 이 코스는 지금까지 기성종교가 안겨준 불안과 이유없는 공포에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선전했다.

"비신자"라고 자처하는 강사 로버트·사브가씨는 인터뷰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설자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종교가 인격성장을 저해하고 정신착란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교 보수주의 조직인 트네쌍스·인터내셔날의 창시자 케네스·캄벨목사는 "학교가 종교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패씸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스카브로에 있는 성·어거스틴 신학교의 브라이언·크로부 신부도 이 코스가 "기독교를 모독하는 처사요 왜곡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종교계 인사들은 에린데일대학이 이같은 코스를 개설한것을 옹호했다.

연합교회의 토론토·노회서기인 론·월쉬목사는 "나는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믿고 있으나 다만 사브가씨가 말한 내용중 종교가 신자들에게 [illegible]을 초래한다고 하는 발언에는 동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에린데일대학 부근에 있는 에린데일 연합교회 목사인 로버트·쿨리아노 목사도 "이 코스는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한 단계"라고 하면서 이 코스를 옹호했다.

에린데일의 연장교육의 책임자인 트·메코믹씨는 "이 과목은 종교적역사에 초점을 둔 합법적인 학과목"이라고 답변했다.

약물중독과 결혼상담역으로 일하는 25세의 사브가씨는 지난 12년간 반종교적 신앙을 연구했다고 말하면서 "200년전만 같으면 나는 벌써 화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많은 공격과 위협에도 대처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장담했다.

「토론토 국제자동차 쇼」

2월11일부터…포니 선 보여

1월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열린 몬트리얼·자동차쇼를 통해 북미에서 첫선을 보인 한국 현대자동차의「포니」가 토론토교민에게는 다음달 선을 보이게 된다.

뱅쿠버에서 21일부터 30일까지 전시중인 포니승용차는 2월11일부터 개막되는 제10회 토론토·인터내셔널·오토·쇼(Toronto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전시된다.

25일 현대자동차 신항수상무는 2월20일까지 계속되는 토론토·쇼에 포니 4대가 전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포트·로드에 위치한 인터내셔날·센타에서 〈토론토자동차딜러협회〉주최로 열리는 토론토쇼에는 11개국의 32개 자동차회사에서 출품한 500여대의 승용차와 트럭이 전시된다.

주최측은 전시기간중 약 15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규모면에서나 관람자 동원면에서 토론토 최대의 자동차쇼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관람시간은 평일 12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이다.

입장료는 성인 $5(오일교환 무료), 13세이하 어린이 $1.50, 노인 $2.50, 평일 가족티켓은 $8이며 성인 2명, 자녀 2명에 한한다.

경상남북도인 모임 영남 향우회 창립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출신의 모임인 영남향우회 창립총회가 오는 29일(토) 하오6시 케네디 뱅루엣·홀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선출등이 있을 예정이며 디너파티에 이어 각종 여흥순서가 진행된다. 회비는 1인당 $25.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①

미국 CIA기『용금호』접근

또하나의 죽을고비 넘겨

73년8월8일 도꾜의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토막살인"을 모면한 전 대통령후보 김대중씨(※토론토한국일보 1월21자)는 일본<아사이신문>에 기고한 수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물귀신이 되지 않고 서울 자택으로 돌아 갔는지를 밝혔다.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번 오고간 그의 파란많은 체험담을 번역 소개한다.

납치선 위에서…

김후보는 그후 국내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본인의 말대로 한때는 생명의 극한상황에 몰렸다가 82년 12월 형집행을 정지받아 현재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 그는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남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일본이 한국정부에게 납치사건의 진상과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청하지 않은 개운찮은 자세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김씨는 워싱턴 도착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납치사건의 진상, 한국내 문제, 현재의 심경등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씨는 그 회고담을「유감스러웠던 일본의 태도」라는 부제목을 달아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나는 살고 싶다"

양쪽 눈에 붙은 눈가리개 테입의 틈서리를 통해 반짝하는 빛을 느꼈다. 이어 "쾅!"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나는 파도가 선창을 치는 소리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5~6명의 남자들이 "비행기다" 외치면서 피신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배의 갑판 위에서 두손과 두발을 노끈으로 묶이고, 오른손목과 왼쪽 발목에는 무거운 닻(쇳덩이)이 달려 있었다. 이 닻은 30~40Kg은 될 것같았다.

그들은 이번에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려던 것이다.

그 순간, 내게는 늘 기도하던 하느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바다에 던져지면 깊이 가라앉아 2, 3분내에 죽고 말것이다. 그러나 몸의 하반신은 상어밥이 되더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 옆에 예수·그리스도가 서계시지 않는가!

나는 엉겁결에 그리스도의 옷깃을 붙잡고 절규하듯 빌었다.

"나는 아직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죽어서는 안됩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가려진 눈에 빛이 어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한 것은 비행기의 엔진소리였을까?

그때부터 30~40분쯤 지나 한 젊은이가 내게로 달려왔다.

"김대중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내 얼굴에는 코만 빼고는 전부 테입이 붙어 있어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저는 요전 선거때(1971년4월의 한국대통령선거) 선생님께 찍었읍니다."하면서 자기 고향을 말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선생님, 이제는 살아나셨읍니다."

배안의 분위기 바껴

이 배의 이름은「용금호」로 한국중앙정보부(KCIA)의 소유선이다.

젊은이의 말대로 그때부터 선내의 공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내 발을 묶은 끈을 풀고, 손의 끈도 느슨하게 늦추어 주었다. 눈가리개는 그대로 두었지만 입마개 테입은 떼어버린 뒤 쥬스를 마시게 해주고, 담배도 입에 물려 주었다.

중갑판에 내려가 몸을 펴고 굽힐 수도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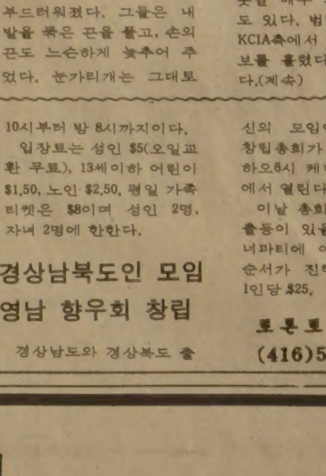
도꾜의 호텔에서 납치당한 나는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벗어나 서울자택으로 돌아왔다.

미국이 구명운동

후에 안 일이지만 내 목숨을 건져준 비행기는 미국중앙정보국(CIA) 소속기였다.

미국 CIA는 일본내 KCIA 그룹과 한국본부와의 무선연락을 도청하여「용금호」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번 미국에 와서 사건당시의 미국무성 한국부장이던 레이너드씨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침 출장중이었으나 급히 국무성으로 돌아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게 나의 구명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의 조치가 나를 살린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배가 문제의 납치선「용금호」·75년8월「유성호」로 이름을 고치고 오사까항에 입항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당시의 주한미국대사 하비브씨가 박정권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못보자, 미국은 비행기를 파견, 납치선을 위협했던 것이다.

미CIA는 KCIA 내부에 깊이 들어가 있어 무선정도는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당시 하수인 중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다"고 훗날 매우 피로워한 사람도 있다. 범행을 명령받은 KCIA측에서 미국 CIA에 정보를 흘렸다는 설도 들었다.(계속)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제2회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 연합수련회

제2세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및 관련자들의 자질향상과 신앙수련및 상호협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1. 일 시 : 1983년2월5일(일) 오전8시~오후8시
2. 장 소 : 새한장로교회(Tel. 482-4577)
   105 WILSON AVE., TORONTO, ONT.
   ※York Mills 서브웨이에서 96번 96A뻐스를 타고 두번째 Bus Stop에서 내려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남쪽에 교회 보임.
   Hwy401에서는 Avenue Rd.로 나와 Wilson에서 Left Turn 하세요.
3. 대 상 : ①교회학교 유·초·중·고·대학부(청년부)교사및 교사희망자.
   ②당회 교육부장, 교육담당목사, 학부형.
   ③대학부(청년부) 회장단및 회원.
4. 참가비 : 1인당 $10.
5. 강사및 강의 내용(프로그램에 따른 순서임)
   ①안병한 목 사(개회 예배 설교)
   ②조경자 목 사(인간성장에 따른 기독교교육-영아에서 노년까지)
   ③홍순관 목 사(성공적인 교회학교 여름 캠프)
   ④이상철 목 사(학생회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⑤이순희 선 생(유치부 노래및 율동)
   ⑥임명희 전도사(유·초등부 노래및 율동)
   ⑦정경진 전도사(대학부 소구룹 성경공부를 위한 프로그램)
   ⑧나희수 전도사(시청각교육및 교재작성법)
   ⑨김애영 전도사(효과적인 성경교수법과 교안작성법)
   ⑩정관일 목 사(헌신예배 설교)
6. 문의및 연락처 : 이용술장로 (R)630-4902, (B)633-9420 Ext.486
   공병화집사 (R)626-5382
7. 점심 : 기독여성회 연합회 제공 간식 : 영락교회·침례교회·제일교회 제공
   ※베이비 시터 준비되어 있음.

주최 :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회 후 원 : 교역자회·장로연합회·기독여성회 연합회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K.B.A. 교환센터

◆Frozen Food Cabinet 있음
84"×30"×42" High
Asking $300.-(947-1032 Mr. 서)

◆Hardware Stock이 많이 있음.
원하는 품목만 소량이라도 염가로 제공함.
(669-6438 Mrs. 염)

◆8Feet 3층 Magazine Rack 구함.
(743-2398 Mr. 유)

◆Vegetable 팔 수 있는 Cooler 구함.
(247-6965 Mr. 박)

최초의 단체(치아)보험체결

상점보험도 고려중

치아단체보험을 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적임회사를 물색해 오던 협회는 드디어 Crown Life Insurance Co.와 계약을 체결하고, 2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1인당 연 최고 $1,500까지의 치료비가 전액 카바되고, 보험료는 월 가구당 $32, 개인당 $10에 보험회사 사무비로 $2.50를 가산하여 가구당 $34.50, 개인당 $12.50로 되어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개인으로 각각 가입해도 무방하다.

본 단체보험은 5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야 성립되는 조건이고, 직접 종업원을 관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 협회(Association)에 대한 단체보험은 이번이 첫번 시도라고 한다.

신청방법은 하단에 표시된 신청서에 기입하여 협회로 우송하면 보험회사의 사원이 직접 개개 상점을 방문하여 질문에 응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500개 회원가입을 완수하는데 6주내지 8주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식체결은 지연되더라도 1983년 2월1일 이후의 치아치료대금은 전액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므로 bill을 보험회사에 보낼수도 있고, 이미 지불했으면 영수증 제시로 보험회사에서 회원에게 환불해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단체보험이므로 3월에 정식계약체결을 하고, 2월중에 치아치료의 사실이 없더라도 보험료는 2월부터 지불해야 하는 점에 오해없기 바란다.

첫 1년간의 실적을 통하여 2년째의 보험료는 재조정하되, 그 보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협회는 수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있다.

치아에 대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타 보험(OHIP 이외의 의약품보험, 해외에서의 치료에 대한 보험, 생명보험등)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되어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원이 회원상점 방문시에 설명하겠거니와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OHIP을 제외한 의료보험
가구 $20, 독신 $8
(처방당 $2 자기부담이고, 플라스틱제 Prescription Drug Card를 제공함)

◆해외에서의 치료보험
가구 $2, 독신 $1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OHIP에서 제외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최고 90일까지의 입원비와 $2,000까지 카바됨)

◆생명보험(내용에 따라 다양함)

당초 협회에서는 이러한 단체보험을 가능한한 한국인 보험업자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명령계통이 설 수 있는 회사와 달리, 협회는 직접적으로 Control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위험성이 수반된다 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부득이 Crown Life와 체결을 하게 된 것이다.

보험료는 첫달분은 현금이나 수표로, 둘째달분은 연수표로 수금하고, 3번째 달부터는 거래은행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출하기로 되어있다.

한편 상점의 종업원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에 한하여 자격이 있고, 직장을 옮기면 자동적으로 보험혜택이 상실되나 KBA회원 업체로 옮기면 보험혜택은 계속된다.

이번 단체보험은 협회가 장기간 여러 회사와 접촉하여 조사한 결과 선정했으므로 협회라는 조직체로서 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되므로 전회원이 가입하여 이 혜택을 이용하여 주기 바라고, 이번 단체보험의 성과여하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점에 대한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이르기까지도 그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캐나다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으로

당뇨병 Coin Box 설치 키로

본 실업인협회가 탄생한지 10년이 되었고, 튼튼한 기반 위에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음에 즈음하여, 그 활동의 범위도 협회원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추구하는 협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가 생을 누리고 있는 이 나라 사회에도 공헌해야 한다는 요청이 협회의 여러 모임에서 대두하기 시작해 왔다.

이러한 사회공헌을 하는데는 크게 나누어서 협회가 직접 금전적으로 기부를 하는 길과, 기부를 갹출하는 공공단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협조 지원하는 두가지가 있을 것이다.

협회는 그 첫사업으로 「캐나다당뇨병협회」(Canadian Diabetes Association)가 주관하는 Coin box 설치사업에 전체 회원이 협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택하기로 하였다.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구중의 하나인 「국제라이온스클럽」(International Lions Club)도 1983년을 「당뇨병 연구및 예방」의 해로 정하고 세계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당뇨병협회」의 토론토지부장인 Larry Wright씨는 본협회 차선겸 회장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가 캐나다당뇨병협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의 700여개 상점에 coin box를 설치하고, 기금을 모금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한인 Lion's Club을 통하여 접하고, 전캐나다의 협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여기에서 갹출되는 기금은 토론토지역의 당뇨병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해옴과 아울러 한인실업인협회의 이러한 협조를 매스컴을 통해 널리 일반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필요한 coin box는 당뇨병협회에서 직접 회원가게에 공급하고 회원 여러분은 카운터의 고객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비치해 놓으면 되고, 동전이 가득차면 협회사무실(533-7923)로 전화하면 된다.

본 지원사업은 회원이나 협회에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제위의 조그만 협조심으로 금전적으로나 대의명분으로나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회원제위의 적극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문제의 당뇨병에 대하여 Dr. 왕운린(Family Doctor)은 아래와 같이 해설해 주었다.

당뇨병이란?

Dr. 왕운린

당뇨병이란 신체 인슈린(Insulin)의 부족, 또는 절대적인 결핍으로 오는 만성대사질환으로 흔히 유전과 관계있다. 고대 이집트역사나 인도및 중국의 의학서적에도 기술된 바 있다.

대사질환중 제3위인 당뇨병은 전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에스키모인에는 드물고, 북미 인디안에는 매우 흔하다. 또한 연령과도 관계가 되는데, 예로서 24세까지만 해도 인구천명중 2명꼴이 45세 이후엔 33명, 65세를 넘으면 69명으로 늘어난다. 비만증과도 관계가 되며, 유전은 확실하나 그 유전양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임상학적으로 췌장장애, 내분비장애및 약물로 인한 비유전성인 당뇨병과 유전으로 오는 당뇨병, 즉 소년형및 성인형등으로 대분한다.

당뇨병의 증상은 대개 구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입맛이 좋아 밥을 많이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고, 기력이 없고, 눈이 흐려지며, 다리에 쥐가 나는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당뇨병 치료에는 식이요법, 약물요법및 인슈린 요법등이 있다. 치료만 원만히 하면 생명에 별 지장이 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으니 의사와 잘 의논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치료를 택해야 된다.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신체 각 혈관의 손상으로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마비가 생기며 심지어는 눈이 멀거나 콩팥이 파괴되고, 중추신경및 말초신경에 장애를 가져오고, 지단궤사(指端壞死)가 생기거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을 초래하게 되니, 위에 열거한 증상이 있거나 나이가 40세 이후 몸이 비대해지고, 가족중에 당뇨병이 있거나한 분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단체치아보험 가입

치과의사 윤중태

◆윤중태씨

존경하는 실협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던 치과보험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한 직업인으로서 협회의 의뢰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나 이득이 있으며, 왜 필요한가에 관하여 소고를 올리겠읍니다.

모든 일을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이나 혹은 계획을 세우듯이 치과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치통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정규적으로 치과를 찾아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큰 고통 없이 일생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강의 건강은 우리 전신의 건강에 많은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치통이 있은 후에 찾아 오신다면 치료의 방향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치과의사로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 중요한 이를 잃게 되는 경우, 우리의 건강에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치아 하나하나의 손실을 우리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비교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라도 잃겠읍니까?.

중요성은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구음식은 고국의 우리 것보다 당분도 많고, 치아나 잇몸에 부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식후 즉시 칫솔질을 하여 음식잔재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충치나 치주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이는 치질(Tooth Substance)이 약하기 때문에 충치에 오염되기가 더욱 쉽습니다.

회원 여러분, 바쁘시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치과 방문을 게을리 하시어 아픈 후에 오시게 되면 치료중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크며, 불행하게도 많은 중요한 치아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시어 일정한 소액의 보험료를 내심으로써 전가족이 안심하시고, 매6개월마다 진찰을 받아 큰 걱정을 적게 만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협회가 추진하는 치아보험은 타보험보다 비교적 좋은 내용의 것이므로 부담 없이 보험가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치과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치료비만 보아도 「스케일링」에 $22~$45, 진찰료에 $13~$53, 그리고 X레이 촬영 1매에 $9, 10매에 $31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요금으로 얼핏 미루어보아도 전가족의 보험료가 월 $32이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아 회원 여러분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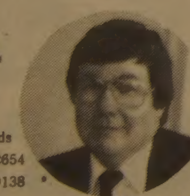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K.B.A. 치아단체 보험내용의 개요

◆연락처



◆Graig Heads
(B)221-2654
(R)826-9138

◆James Upfold
221-2654

◆실업인협회
533-7923

◆치아보험 가입은 의무적이고 기타 보험은 자유임.

◆가족은 K.B.A.회원과 배우자및 직계 부양가족을 말함. 자녀중 21세~25세의 학생도 포함됨.

◆자녀없는 부부는 개인으로 각각 가입 가함.

◆Deductable 없이 전액 카바됨.

◆월보험료 : 가족 $34.50(보험회사 사무비 $2.50 포함)
개인 $12.50(보험회사 사무비 $2.50 포함)

◆1인당 년 최고 $1,500까지 카바됨.

◆1983년 2월1일부터 발효함.

◆보험료지불은 3개월째부터 거래은행에서 자동인출됨.

◆치아치료중 보험에 카바되는 내역 개요.

◉매 6개월의 정기적인 치아진찰
◉스케일링
◉X 레이
◉불소도포
◉금사용을 제외한 모든 충전치료
◉치아에 관계되는 구강수술
◉치주병치료(잇몸 질환)
◉치아간격 유지
◉치아치료에 소요되는 의약품
◉치아의 발치
◉신경치료(근관(根冠) 치료)
◉기존 의치의 치료
◉기존치관과 가공(架工)의치의 치료

TO: SUN KYUM CHA, PRESIDENT
FROM: (YOUR NAME) ______
COMPANY NAME: ______
ADDRESS: ______
______
TELEPHONE NUMBER: ______

I WISH TO JOIN THE ONTARIO KOREAN BUSINESS MEN'S ASSOCIATION GROUP DENTAL INSURANCE PROGRAMME EFFECTIVE FEBRUARY 1, 1983. PLEASE ENROL ME FOR THE FOLLOWING BENEFITS:

( ) SINGLE COVERAGE
( ) FAMILY COVERAGE
( ) PRESCRIPTION DRUG COVERAGE/SEMI-PRIVATE HOSPITAL COVERAGE/AMBULANCE/PARAMEDICAL/APPLIANCES/ETC.
( ) EMERGENCY OUT-OF-CANADA TRAVEL COVERAGE TO PAY DOCTORS BILLS AND HOSPITAL BILLS WHILE TRAVELLING/VACATIONING OUT SIDE CANADA.
( ) TERM LIFE INSURANCE COVERAGE
AMOUNT $______(Crown Representative will assist)

RETURN THIS FORM TO THE ABOVE ALONG WITH YOUR FIRST MONTH'S PREMIUM CALCULATED AS FOLLOWS:

- DENTAL COVERAGE
SINGLE $10.00, MARRIED $32.00
- PRESCRIPTION DRUG/HEALTH COVERAGE
SINGLE $8.00, MARRIED $20.00
- EMERGENCY OUT-OF-CANADA BENEFIT
SINGLE $1.00, MARRIED $2.00
-MONTHLY ADMINISTRATION/BILLING FEE - $2.50

TOTAL MONTHLY PREMIUM: $______(Make cheque payable to Crown Life)

COMPLETE THE FOLLOWING INFORMATION:

1. YOUR DATE OF BIRTH: ______
2. YOUR SOCIAL INSURANCE NUMBER ______
3. NAME OF SPOUSE AND DATE OF BIRTH: ______
4. NAMES OF DEPENDENT CHILDREN AND DATES OF BIRTH: ______

"美國은 民間人이 軍人 지배하는 나라"

▲대통령시절 서울을 방문했을때 한국국민들이 보여준 열광적인 환영은 지금도 잊지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포드 전대통령.

美國에서 쿠데타는不可能
2백년의 政治傳統때문에

제랄드 포드 前大統領 獨占회견

골프에서 시작되는 제랄드 포드의 政治哲學
"어려움 닥치더라도 희망버리지말아야生存가능"
夫人의 상처 보답위해「베티포드 센터」建立
"한국訪問때 市民들의 환영 영원히 잊지못하겠다"

미국의 전대통령(1974년8월-1977년1월) 제랄드포드(70)의 정치철학은 골프에서부터 시작된다. 『골프의 묘미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UP-DOWN(엎치락뒤치락 변화)에 있읍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기도 하고 모래에 파묻히기도 하며 어떤때는 공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골프와 정치가 유사한 점은 트러블이 많다는 것과 두게임의 결론이 『용기를 잃지말고 희망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했다.

제랄드포드는 백악관에서 물러난 후 정치관계로 보다는 골프로 TV에 얼굴이 더 자주 비친다.

그는 골프를 취미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통해 자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정객들과도 만난다.

콜로라도주 베일(포드의 동계별장이 있는 곳)에서 「제랄드포드 오픈」골프대회를 열기도 하며 아이젠하워종합병원 증축 기금을 위해 매년 1월 팜스프링스에서 막을 올리는 Bob Hope Desert Classic골프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이 골프대회는 아마추어들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코리아오픈보다 훨씬 규모가 크며 유명한 세계의 프로들이 대거 참가하는 자선행사다(상금만 40-50만달러).

본보와 인터뷰약속을 한 지난 19일은 마침 「밥 호프 클래식」이 열린 첫날이었으며 포드는 민주당의 실력자인 토마스오닐(연방하원의장), 골프황제로 불리우는 잭니클러스와 한조가 되어 타마리스크칸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골프장에서는 누구나 그를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른다(미국에서는 정치인과 군인들은 은퇴해도 과거의 직책을 호칭해 주는 것이 관습이다). 그의 티셔츠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라고 쓴 휘장이 새겨져 있으며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갖고 따라 다녀 현직대통령인지 전직대통령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을 그만두면 그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골프대회에서는 모두 걷도록 되어 있으나 포드는 카트(바테리 소형 자동차)를 타도록 국가원수배려를 해준다. 그러나 티오프할때는 잭니클러스가 먼저다. 그런데 공이 올라간후에도 전직대통령이라 하여 gimme(상대방의 파딩을 적당히 봐주는 것)를 주는 일이 없다. 원리원칙대로 게임을 마쳐야 한다.

15번홀에서 오닐하원의장은 잭니클러스의 파딩라인을 밟은 것을 뒤늦게 알고는 『아이구 미안해! 잭 나를 용서해주게』라면서 사과한다.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광경은 미국사회계급의 단면을 보여준다. 『누가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에 따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무게가 저울질 된다. 밥 호프는 코미디언이지만 레이건대통령이나 포드, 오닐하원의장과 first-name-base(말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다. 밥 호프는 팜스프링스의 터줏대감이며 VIP에 속한다.

TV에서 소개할때도 『우리나라의 국보(national treasure)인 밥 호프…』라고 인사가 시작된다.

미국에서는 연예인 체육인으로 유명해지면 대통령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될수도 있다(레이건대통령이 대표적인 케이스).

타마리스크칸트리클럽에서 자택으로 돌아온 포드는 곧장 서재에서 본보기자와 만났다. 『성적이 좋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형편없었다』면서 파이프(담배)에 불을 당긴다.

대통령재직당시 골프를 치면서 제일 입장난처한 일은 무엇이냐고 묻자 『구경하던 사람이 나의 공에 맞는 것입니다. 정말 난처해요』라면서 웃는다(포드는 티오프할때 공이 관중들 있는데로자주 날아가 FORE!(공을 조심하라는 뜻)를 가장 많이 외치는 골퍼중의 한사람이다. 『현재 핸디캡이 15로 되어있는데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고민』이라면서 프로들과 함께 치기에는 핸디캡이 좀 높은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시절 그의 공이 관중의 머리에 맞아 병원에 입원, 포드가 쾌유를 비는 전문까지 보낸 에피소드도 있다.

포드는 아이젠하워대통령과 함께 미국대통령중 골프에 가장 심취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아이젠하워는 각료회의를 골프장에서 열기도 했었다.) 팜스프링스의 부촌으로 유명한 랜초미라지의 샌드듄스거리에 자리잡은 포드의 저택은 골프코스의 17번홀과 뜰이 붙어 있다. 문을 열면 바로 골프장이다. 자가용 골프카트까지 갖추어져 있다. 대통령을 물러난후 팜스프링스에서 살기로 작정한것도 골프때문인것 같다. 자택은 사무실을 겸하고있으며 경호원이 출입자들의 신분을 확인한후 문을 열어준다. 여비서도 3명이나 된다.

그가 부통령직을 승계받았을때 (애그뉴후임) 미의회가 조사한 그의 개인재산액은 25만달러였으나 지금은 집값만해도 백만달러는 훨씬 넘을듯 싶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포드는 『내가 74년(11월22일) 한국을 방문했을때의 환영인파는 잊을수가 없소. 연도에 나온 그 많은 관중을 당신도 그때 봤겠지?』라면서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환영받으리라고는 자신도 미처 기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정희대통령은 부인을 비명에 잃은지 몇달 안됐고 나는 베티(부인이름)가 암수술을 해 치료받고 있던 때라 우리두사람은 모두 퍼스트레이디없이 만난 특이한 상봉이었읍니다. 그래서 서로 친근감을 더 느꼈어요』

포드는 몇년후에 박대통령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몹시 슬펐다고 했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사살하는 아이러니칼한 비극이 왜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기자가 묻자 『내가 그질문에 대답하기에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알고 있을것 같다』라면서 능숙한 정치인답게 답변을 넘겼다.

그는 화제가 카터의 주한미군감축으로 돌아가자 상당히 음성을 높혔으며 카터의 정책을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었다. 남북통일에 관한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글쎄,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는…』하며 자신은 기대하지 않고있다고 했다.

포드는 의회생활 25년에서 미하원군사분과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53년 7월에 다시 덜레스국무장관과 판문점에 가서 포로석방사인을 했었죠. 그것이 나의 첫한국방문이었고 두번째는 대통령이 되고 난후 였읍니다. 한국방문은 두번다 잊을수없는 분위기였죠』라고 말한다.

포드의 팜스프링스자택 부근에는 「베티포드센터」가 있다. 이 센터가 무엇하는 곳이냐고 묻자 포드는 활기띤 표정을 지으며 『베티포드센터는 알콜중독과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병원겸 연구기관입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갖다드리지』라면서 서류가방을 가져와 병원소개 팜플렛을 꺼낸다.

베티포드여사(64)는 몇년전 알콜중독증을 치료받기 위해 롱비치병원에 입원, 화제가 됐었다. 포드여사는 남편의 오랜 정치생활을 뒷받침하는동안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해져 취침용으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것이 중독증으로까지 발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베티포드센터 소개책장 첫머리에는 베티여사가 왜 이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뼈아픈 경험담이 이렇게 적혀져있다.

『나는 옛날에는 아주 예의범절이 바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뭐가 뭔지 파악을 못하게되고 나중에는 살고싶은 의지까지 잃어버렸다. 나는 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는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세상에는 알콜때문에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미국정치인들의 부인들이 남편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가는 위의 베티포드여사 경험담 이외에도 최근에 이혼한 조앤·케네디(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부인)의 케이스에서도 찾아볼수있다.

조앤케네디여사도 스트레스를 못이겨 알콜중독에 걸렸으며 결국은 자녀들까지 잃을가봐 에드워드케네디가 차기대통령 출마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포드는 베티포드여사와 결혼하던날 선거연설을 하고 오느라고 결혼식장에 한시간이나 늦게 도착해 신랑이 도망간줄 알고 소란을 피웠던 뼈아픈 경험을 지니고 있다. 포드는 하원야당총무시절『2년만 국회생활을 하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기로』 부인과 약속했을때 부통령에 지명되었으며 결국은 닉슨하야로 대통령직까지 승계하게 되어 부인의 정신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그래서 『레이건의 임기가 끝나면 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한번 더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정색을 하며 『NEVER!』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한다.

이때 여비서 페니서클여사가 들어와 다음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자 포드는 마지막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다.

기자는 『미국에서는 왜 군부쿠데타가 불가능한가』라고 물어보자 그는 『민간인이 군인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민간인우위의 미국정치전통은 2백년이나 된것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성공할 수가 없다. 누가 시도할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사람도 성공못한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포기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민간인이 군인을 지배하는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견이 끝나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본인은 전두환대통령이 나까소네 일본수상을 한국에 초청한 것에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일관계는 어떤가』『전두환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Bob Hope Desert Classic 골프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포드(가운데). 잭니클러스(왼쪽)의 티오프를 지켜보고있다. 오른쪽은 오닐하원의장. 포드는 골프와 정치가 같은 성격의 원칙을 지니고 있는 게임들이라고 풀이했다.

팜스프링스에서
글 : 이철 특파원 사진 : 박세훈 특파원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Monami Restaurant
もなみ
◎각종 스시및 일본식 요리
아늑한 일본식 「다다미방」이
점심시간에도 이용하실수 있게
준비되어 있읍니다
EGLINTON AVE
BAYVIEW AVE
OPEN Mon~Fri, 11:30~2:30
5:00~10:00
Sat, 5:00~10:00
Sunday & Holiday Closed
114 LAIRD DR. Toronto
PHONE: 421-6016

이민수속에 관한
제반사항
=무슨 내용이든 기밀엄수합니다.=
□취업이민
□초청이민
□WORK PERMIT
□유학비자
자세한 상담은
몬트리얼의 Mr. 윤에게
연락하세요.
☎: 1-(514)-933-0217
1827 St. Cathorin,
Montreal H3H 1M2
*50% ~70% 수속비
반환 보장
Consultin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Consultation

광고주께
알립니다

본사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실시 계획이던 한인비지네스 한인업소 책자 발행건은 칠성광고회사(대표 이인용)에서 이미 착수, 작업중이므로(2월중 발행예정) 이의 중복을 피하고자 공동으로 발행(비매품)키로 결정했읍니다. 이에따라 칠성회사에서 광고싸이즈, 광고요금, 데자인등 모든 광고에 대한 내용 일체를 책임 전담하고, 저희본사는 원고식자및 광고연락업무 협조를 하기로 하였사오니 광고주께서는 양지하시옵고, 광고문의는 직접 칠성광고회사(Tel. 789-735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
광고국장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Bathurst
St. Clair
Vaughan
538 St. Clair W. 656-0456
(세인·클레어×베다스트)
유 창 준 654-6609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北韓 남침땐 戰術核사용"

駐韓美軍 계속 주둔

速決서 長期戰, 전략바꿔

마이어美육군참모총장會見

◇마이어美陸參총장

【서울=AP·UPI=聯合】한국을 방문중인 에드워드·마이어美육참총장은 22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필요하다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것이며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동안은 계속 체재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극동순방중 한국에들른 마이어장군은 이날 서울에서가진 조찬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이 계속되고있으나 현재로서는 주한미지상군의 추가 파병이필요하지는 않다고말했다.

그는 북한이 병력면에서한국을 앞지르고 있고 또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나 한국은 강력하고 고도로훈련된 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상의 차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에 또 하나의 미 보병사단을 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사견으로는 그렇게 하는것은 실수로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확인할수는 없으나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주한미제2사단을 포함, 약3만9천명의병력을 유지하고있다.

마이어장군은 또 韓美日3국의 긴밀한 군사유대가 동북아의 방위능력강화에도 움이될 뿐만 아니라 3국간의 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를 절감하여 군사적효율성을 제고시킬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미국의 對韓군사지원은 미제2사단뿐만아니라 전술및 전략공군과 해군력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역내기본군사력은 앞으로 수개월이내에 증강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육군에있어 1982년은 많은 것이 시정되는등 훌륭한 한해였다고말했으나 자세한 내용을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일본이 다시군사강국을 지향할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않다고 답변하고 일본은 자체방위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덧붙였다.

마이어장군은 일본을 거쳐 지난 20일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마이어장군은 최근 보도된 전쟁물자 60일분 비축계획에 언급, 카터행정부때 단기速決戰전술개념은 현행정부에 들어와서필요하면어느때까지라도 전투를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새 전략으로 바뀌었다고말했다.

마이어장군은 전쟁을 3일내에끝낸다거나 한국군이 10일 전쟁을위해 준비태세를갖춘다든가하는 생각은 위험한 구상이라고 말했다.

美, 퍼싱Ⅱ發射 성공

◇美육군의 말썽많은 퍼싱Ⅱ중거리 미사일이 21일 플로리다州 케이프카내버랄 공군기지에서 성공리에 발사되고있다. 이날의 발사는 3번째 실시된것으로 작년7월첫번째실험때 퍼싱Ⅱ미사일은 발사직후 폭파됐었다.【케이프카내버랄21日UPI電送=聯合】

【워싱턴=聯合】미육군은21일 말썽많은 퍼싱Ⅱ중거리미사일의 발사실험에 성공, 미사일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육군대변인 제리·헨리소령은 케이프 카내베랄 시험장에서 이날 세번째로 실시된 실험에서 성공한 퍼싱Ⅱ미사일의 추진로키트기능은 전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재돌입상태에 관해서는 추적미사일이 수집한 자료를 완전히 분석평가해야하기때문에 그전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農地소유 上限線 확대

陳民正政策委議長

民正黨은 농업기계화촉진을위해 현재3정보로 되어있는 農地소유上限線을 늘리고 耕地정리 國庫보조비율을 현행50%에서 10%올리는 방침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陳懿鍾 정책위의장은 22일 東草지구당(위원장 鄭在哲의원) 개편대회에 앞서 가진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농업도 궁극적으로는 企業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전제, 「그러기위해서는 농업기계화와 耕地정리가 선결돼야하는데 民正黨은 이를앞장서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民正黨은 아직도 정리가안된18만8천헥타르의정리를 추진할수 있도록 올해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작년보다 10%올린 60%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 기계화 營農團도 2천개가 되도록 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陳의장은 또 「영세沿岸 어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漁船員 전원이 대상인선원수첩소지의무를 30톤급이하의 어선원은 수첩을 갖지않고도 취업할수 있도록 선원법을 개정하고 재해보상도 공장근로자의 産災기준에 준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체出漁費의 45%를 차지하는 沿近海어선의 油類에 대해서는 정부의 租稅低減免정책과 관계없이 면세조치를 당분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解禁人士 최우선 迎入"

柳 民韓총재 年頭회견 공정한 選擧제도를 촉구

16개사고地區黨에…副總裁1석등 늘려

【光州=李彦俊기자】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2일 「우리는 정치활동解禁者들을 雙手를 들어 환영, 第1野黨의 陣容을 한층강화시킬것이며, 민주주의를향한 발걸음을 한층재촉할것」이라고 천명했다.

柳총재는 이날상오 光州관광호텔에서가진 年頭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치解禁者들의 迎入을위해 그들의 의견을참작, 黨이 취할수있는 모든조치를 강구할것이며 현재 組織責이 空席중인 16개事故黨部에 있어서도 解禁者중 이지역에 해당되는 인사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현 선거제도하에서는 평화적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공정한 선거를위해 與野가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법을 포함,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柳총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국회법개정 ▲언론기본법개정과 언론기관에 대한 간섭의 즉각철폐 ▲與黨의 정치자금·조직·선전기능 獨占배제 ▲선거법개정등 4개항을 요구했다.

그는 이와함께 「정부·여당이 참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民韓黨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柳총재는 또 「나는 대통령이 國政연설을통해 밝힌 對話정치와 公開정치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자 한다」면서 「公開와 對話의 정치가 비단 與野간의 대화를 활발하게하는데 그치지않고 정치被규제자를 비롯 종교인, 지식인, 국민각계각층과도 흉금을 털어놓는 폭넓은 대화를 하기를 대통령에게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자가 정부를 아무리 비판해도 국민이 들을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화정치나 공개정치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날 근로자와 농민들은 물가안정의희생이 되었고 罪없는 정치인들은 묶였고 양심있는 지식인들은 옥죄림을강요당했으며 特惠재벌과 부패관료들은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않고있다」면서 「이모든것을 정상화시키는길은 민주회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柳총재와 기자들간의 一問一答은 다음과 같다.

—解禁인사 迎入에따른 黨憲개정여부.

▲현행 黨憲은 그분들의영입을 위해 부총재1석 黨務위원6석 중앙상위위원 20석등 제도적인 迎入채비를갖추고있다. 黨憲개정의필요성은 느끼지않으나 解禁이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하겠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制度개선의 방안은.

▲거듭 말하지만 평화적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법개정뿐 아니라 제도가개선돼야 한다. 대통령선거법을포함해 모든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

◇22일 光州서 年頭기자회견을 갖고 解禁된 인사의 迎入원칙을 밝히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역설하는 柳致松民韓黨총재.【光州=崔東完기자찍음】

"外國人취향맞는 제품生産을"

全대통령, 한국수출산업公團등 시찰

◇全대통령이 九老公團내 요업개발공사 작업장에서 여종업원들을 격려하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2일 하오 서울九老區 한국수출산업公團과 仁川市에 있는 中小생산업체등을 예고없이 시찰, 생산공정과 작업환경등을 살펴본뒤 종업원들을 격려했다.

올들어 첫 생산현장시찰에 나선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한국수출산업公團내 南星電器공업회사에 들러 崔明憲公團이사장과 洪禹津 南星電器 관리이사로부터 公團현황과 회사현황등을 각각 보고받고 이회사제품인 카·스테레오등의 國産化비율, 올해 수출목표등에 관해 물었다.

全대통령은 이어 公團내요업개발공사에 잠시들러 견본실등을 살펴본뒤 「86년아시아경기대회, 88년 올림픽에 대비, 외국인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우리고유의 풍속을 담은 각종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회사 관계자의 설명에 「우리 고유 풍속을 살리되 외국인의 취향에도 맞게 제품을 정성들여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仁川市北區曉星洞에 있는 製靴업체인 「大洋」회사를 찾아 사장실에서 趙南日 관리이사로부터 회사현황에 관해 보고받은뒤 잠시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기술人力확보문제, 원자재구입, 國産원자재비율, 여성근로자 離職率등에 관심을보인뒤 기술자들의 해외파견문제에 관해 「기술자를 해외시장이나 외국의 유명제품회사에 직접 파견해 정보도얻고 기술을습득하는게 좋겠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歸路에 장충체육관에들러 제37회 전국남녀농구종합선수권대회 코오롱 對 太平洋화학경기후반전과 産銀對 國民大學의 전반전경기를 약40분간 참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蘇위성 24일 大氣圈진입

상오8~하오3時 아라비아 海상공

【유엔본부AP=聯合】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는 24일상오8시(이하 한국시간)부터 하오3시사이에 「아라비아해」상공의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주재 소련대사관이 21일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소련대사관이 코스모스1402호 추락과 관련, 이날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문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스모스1402호는 모스크바시간으로 1983년 1월21일 상오7시 현재 동력원인 원자로와 분리된채 중량1kg당 0.00453㎡의 탄도계수를 유지하면서 원지점2백6km, 근지점1백87km의 지구궤도를 선회하고있다.

코스모스1402號는 모스크바시간으로 1월24일 상오2시부터 9시사이 아라비아해 상공대기권에 진입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과 안해

【東京=聯合】일본과학기술청은 21일 소련인공위성 1402호가 낙하할 가능성이 가장많은 23일하오부터 25일새벽사이 일본주변상공을 4차례 통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4차례 모두한반도상공은 지나지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美서 運行궤도 하루2번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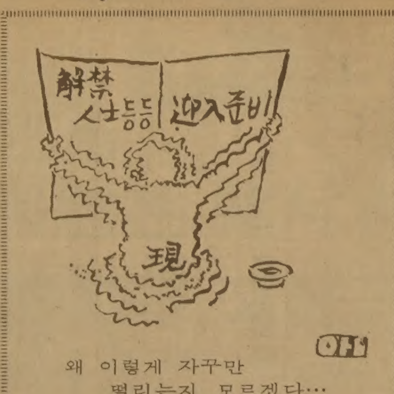
科技處 궤도추적

과학기술처 방사능 방재대책반의 위성궤도 추적반(반장 韓圭弘박사)은 22일상오 11시 미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추적중인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의 위성궤도에 관한 최신자료를 입수, 23일과 24일 이틀간 이 위성이 극동지역을 통과하는 궤도를 추적, 발표했다.

위성궤도추적반의 계산결과 23일과24일 이위성이 우리나라상공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3일에는 하오4시13분 日本남쪽해역으로부터 후꾸오까(福岡)부근을거쳐 홋까이도(北海道)로 빠지는궤도와 하오5시31분 中共北京근처에서 부터 시베리아를 거쳐 지나가는 궤도를, 24일엔 새벽1시29분부터 6분간 滿洲북쪽에서부터 日本 오사까(大阪)부근을거쳐 南東쪽으로통과하는 궤도와 하오3시40분부터 9분간 日本 남쪽해상에서 東京만을거쳐 홋까이도 쪽으로 빠지는 궤도를 택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社會漫評



地平線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을때, 우리 기자들이 康良煜을 만나 회견을 가졌다. 그는 장로교 목사출신으로 김일성 외조부의 6촌동생이다. 당시 회견내용중 몇마디를 신문에서 다시 옮겨 본다. 「미군의 폭격으로 교회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신도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다」고 북한의 「신앙不在」를 얼버무렸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라는 물음에 「내가 목사인데 안믿을수 있나」하며 능청을 부렸다(한국일보 72년9월1일자). 공산세습왕조의 그늘에서 權座를 차지했던 그가 얼마전 사망했다. ▼지금 일본에선 그에대한 조문광경사진이 공개되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한다. 문제된것은 김정일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였는데, 유독 그만이 빳빳이 서있는 장면에 해석이 구구하다.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이런 사진을 내놓았을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떻든 인척한 혈관계조차 외면한 眼下無人의 오만함에 새삼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조차 하다. 우리가 통일의 길을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상대가 바로 이런 집단임을 다시 인식해야 할것이다. ▼지난해 1월22일 우리는 대답하고 가장 현실적인 통일 협의의 문을 열어 놓았다. 全斗煥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통일은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민족의 장래문제」임을 강조하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남북한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통일헌법案도 기초하자는 제의였다. 더 나아가서 북한측의 연방제안까지도 논의할수있는 최고책임자회담을 열자고 확고한 태도를 밝혀 두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부질없는 핑계만 늘어대고 1년이 지나도록 대화조차 외면하고있다. 北의 속셈은 뻔히 들여다보인다. 변함없는 赤化통일 야욕이 있을뿐이다. 게다가 김정일의 후계문제로 벌집쑤신듯 심각한 내분을 겪고있음이 틀림없다. 이런 판국에 통일협상의 테이블이 눈에 들어올리가 없을것이다. 「미군철수」라는 낡은 구호로 그들의 곪집을 가리고 있다하여 무방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절망할수는 없다. 꾸준히 민족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작은 문제부터 착실히 풀어가는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세계는 변하고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있다. 통일의 실마리는 여기서 찾아지며, 대화의 문은 꼭 열릴것으로 믿는다. 解氷시대를 인내로 기다리면 언제고 봄은 오리라는 확신을 1·22제의 청룡에 다짐해 두고 싶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28
535-200

YOUNG SOC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가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개업4주년 특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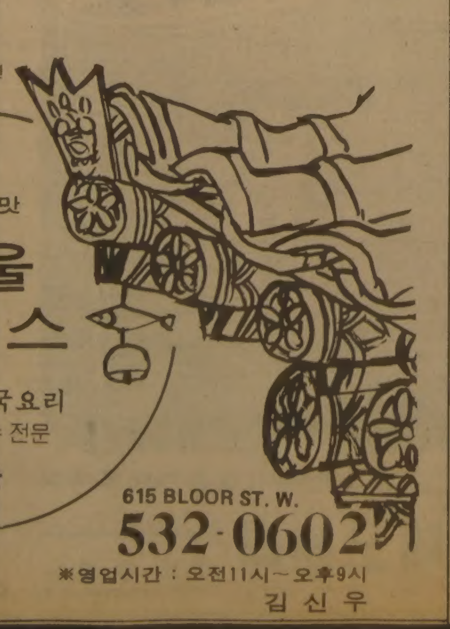
금번 일류 중국요리사(류지달씨)를 모시고 제가 다시 가게를 인수, 새로 다양한 메뉴(한·중식)로 모시겠사오니 1차 왕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신 우 올림.

특별가격

볶은밥	$3.25
비빔밥	$3.25
곰 탕	$3.25
짜장면	$3.25
짬 뽕	$3.25
빈대떡	50¢
에그롤	50¢

함경도식 명물 식혜백반 $3.50



고향의 맛
서울하우스
한식, 중국요리
— 각종 국수 전문
615 BLOOR ST. W.
532-0602
※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9시
김 신 우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蘇,"英·佛과 核減縮협상"

對美협상 별도로 獨自추진 용의

타스通信 보도

【모스크바AP=聯】 소련은영국및 프랑스와의 핵무기감축협상을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미소 군축협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관영타스통신이 20일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이날 동유럽배치 소련중거리 핵미사일을 영불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다는 유리·안드로포프공산당서기장의 지난해12월 제의를 수락하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타스통신은 소련은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미소 군축협상테이블에 영불 양국을 끌어들이지 않고 영불과 독자적인 미사일감축협상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또 제네바회담의 소련협상대표들이 영불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을 미소간 군축협상대상으로 삼을 의도가 전혀 없으며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核미사일의 제한 또는 감축을 제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타스통신은 만약 제네바회담에서 유럽배치 核무기의 감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英佛이 보유하고 있는 核무기는 전혀 영향받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타스통신은 그러나 소련은 영불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소련영토를 강타할 수 있기때문에 제네바협상에 임하는데 있어서 영불 양국의 핵잠재력을 계산에 넣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프간住民 百5명燒死시켜

蘇軍, 터널속에 휘발유붓고

【런던AP=聯】 소련군인들은 지난해 9월 13세이하 어린이 11명을 포함, 아프가니스탄주민 1백5명이 피신해있던 한 댐터널속에 휘발유를 부어넣고 불을질러 이들을모두 불태워 죽였다고 한 아프간장교가 21일 폭로했다.

서구3개국과 미국을 순방하면서 지난해 9월13일 소련군에 의해 자행됐던 아프간주민집단학살사건을 폭로하고있는 6명의 아프간人그룹의 일원인 굴·무하마드(아프간 토가트(省장로)) 씨는 이날 런던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이같은 목격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당시 소련군탱크들이 무장헬리콥터의 공중지원을 받으면서 진입해오자 주민1백5명은 댐터널로 피신했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했으며 장屍身들이 불에타 시계나 신신구등으로 피해주민들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브라운前國防 辭表

MX검토 11人委서

【워싱턴AP=聯】 MX핵미사일배치방안을 검토하기위한 11人연구위원회위원에 임명됐던 해럴드·브라운 전美국방장관이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지미·카터 前美행정부에서 일했던 브라운前장관은 로널드·레이건대통령에 보낸 사퇴서한에서 방위산업체인 TRW社의 고문으로 근무하고있는 자신의 입장때문에 同위원회가 객관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泰軍首腦등 議員사임

쿠데타說뒤…"政權장악의도 없다"

【방콕路=聯】 타이군총사령관 아르티트·캄랑·에크 장군이 21일 상원의원직을 사퇴한데이어 8명의 군고위지휘관이 상원에서 헌법개정을 추진토록 하기위해 임명제로 돼있는 상원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상원의원직을 사퇴한 군부 인사를 가운데는 방콕경비사령관인 피치트·쿨라바니트중장이 끼어있다.

이보다 앞서 이날 피치트중장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않아 불안이 뒤따를 경우 군이 개입해야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한편 장래 수상 물망에 올라있는 아르티트장군은 쿠데타기도소문이 나돈지 하루후인 20일밤 전국TV·라디오 방송연설을 통해 군부는 정권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다짐하고 자신과 군부가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지않기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클라크氏 62회생일

病勢안정 기쁨나눠

【솔트레이크시티(유타州) AP·UPI=聯】 지난해12월2일 인류사상 최초로 영구인공심장이식수술을 받은 바니·클라크씨는 21일 입원중인 유타대학병원의 병실에서 병원의사와 간호원및 가족·친지들의 축하속에 62회생일을 맞았다.

심장이식수술 52일만에 감격적인 생일을 맞이한 클라크씨는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1983년1월21일」이라는 글자가 아로새겨진 높이 60cm가 넘는 3층짜리 대형케이크를 잘랐는데 코를통해 목구멍으로 연결된 인공식도때문에 케이크맛을 보지는 못했다.

◇獻花하는 佛·西獨頂上
佛·西獨평화우호조약 20주년을 맞아 파리를 방문한 헬무트·콜西獨수상(오)이 21일 미테랑프랑스대통령과 함께 개선문에 있는 무명용사비에 헌화하고있다. 【파리21日UPI=聯】

柳致松 民韓총재 會見요지

제1野黨으로 陣容 한층 强化

與黨은 조직·資金등 獨占말라

83년을 맞아 우리가 염원하던 여러가지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주목하지 않을수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정치被규제자에 대해서도 연내에 1차적으로 풀겠다는 정부의뜻을 분명히했다. 이제 확실히 解氷의 年代 83년을 맞고있다.

民韓黨에대한 기대와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권정당으로서의 우리의책임은 그만큼 크다는것을 절감하지않을 수 없다. 금년이야말로 11代국회후반에 들어서는 해이며 우리헌법이 보장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5년앞둔 해라는 점에서 이제 참다운 민주적인 정권교체를위한 밑바탕이 되는 역사적과제를 완수하는 해가 되어야했다.

이른바 개혁의지를 내세운 완고한 정부와 여당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犯의 석방과 정치被규제자의 전면解禁 그리고 국회법 언론기본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를실시할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은 예제서서히 與黨을 보게될 것이다. 지난 예를 온갖不正과 非理속에서 정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정부의 存立자체가위태로왔을 때 정화와 領袖회담을 제의했었다.

이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지난날의 상처를 아물게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저해하는 舊체제의 유산을 과감하게 청산할 것을 요구했었다.

…아들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문제들도 비록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요구는 국민의 소리며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본요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평화적 정권교체는 물론 어느누구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믿지않을뿐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不信은 권력의 정당성자체를 의심하게 될것이다.

…통해 밝힌 대화정치와 공개정치에 깊은 관심을 표시한다. 그것은 비단 與野간의 대화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데 그치지않고 정치 被규제자를 비롯한 종교인이나 지식인등 국민 각계각층과도 흉금을 털어놓는 폭넓은 대화 하기를 대통령에게 제의하는 바이다.

…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있는 몇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국회가 활발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비판할수있도록 되어야함에도 오늘의국회법은 실상 維新체제의 그것을 모방한것에 지나지않는다. ▲둘째 모든국민이 소상하게 國政을 알수있도록 언론의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한다. ▲세째 與野간의 균형을깨뜨린 정당정치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것이나 다름이없다. 여당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정치자금을 독점할때 그것은 사실상 一黨體制나 다름이없다.

…구하려한다면 조직과자금 그리고 선전기능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거듭강조한다. ▲네째 公明선거를 보장하는 길은 法條文한두개를 고치는 이상으로 선거에서 官權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하겠다. 정부가 정권을 잡지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에서 官權개입 하나만이라도 철저하게 막는다면 민주發展史에 자랑스러운 金字塔을 쌓았다고 칭송받을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의 代辯者가 정부를 아무리 비판해도 국민이 들을수없게 만드는 그런한 상황속에서는 대화정치나 공개정치는 어렵다.

나는 정부와 여당이 이것만이라도 떳떳하게 정상화시킬것을 주장한다.

…새삼스레 지난 2년동안의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고 싶지는 않다. 지난날의 쓰라린 고통을 되씹기전에 오늘우리는 지난날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口號만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國政지표를 위해 제1野黨마저 어느새 시들해지…

…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농민들은 목가안… 정의 희생이 되어왔다. 罪없는 지성인들은 묶여졌고 良心은 지성인들은 움츠림을 강요당했다. 특혜재벌과 부패관료들은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않고 있다.

이모든것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민주주의의 회복밖에 없다.

우리는 많은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를 같이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하여 애써왔다. 被규제자와 우리는 한食口다. 규제에서 풀리는 그날 우리는 이분들을 쌍手를 들어 환영하며 한솥밥을 차릴 것이다.

의 解禁을 촉구한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口號만으로 …

우리는 많은 제도개선에 …

…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위한 민주제도정비의 해로 설정하고자한다. 이제 오는 88년의 정권교체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민주주의의 발전은 다시 암초에 부딪칠 것이며 영원히 민주주의를 할수없는 국민이 되고 말것이다.

참으로 평화적정권교체를 원한다면 三尺童子라도 확실히 믿을수 있는 제도개선에 성의를가져야할것을 정부여당에 진심으로 간곡하게 촉구한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땅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나무를 심는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어떤 세력과도 결연하게 대결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떳떳하게 나갈때 국민은 우리를 성원할 것이며 우리가 돌부리에 차여 넘어진다면 국민이 일으켜줄것으로 믿는다.

社說

核衛星발사 禁止하라

—온세계 非常突入, 더 默過못할 일

원자로를 동력원으로하는 소련의첩보위성이 위험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미국방성이 공개한 것이 지난 6일이었다. 그로부터 15일이 지나 미국방성은 이 코스모스1402호가 한국시간으로 오늘(23일)하오3시에서 화요일인 25일 하오5시 사이에 땅위에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몸체에서 분리된 원자로부분은 2월7일에서 13일 사이에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약 45㎏의 농축우라늄을 갖고있는 일종의 「원자탄」이나 같은 부분이다.

따라서 지구궤도에 소련이 쏴올린 「하늘의 무법자」는 2월중순까지 세계를 공포의 그늘속에 두게된다.

다행히 첫위기가 되는 오늘 하오3시부터 25일 하오5시까지의 사이에는 한반도가 문제 위성의 궤도밖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방성의계산으로도 추락확률은 바다 70%, 소련 15%, 캐나다 3%,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2%라고한다. 소련측은 아라비아해 상공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위험권밖에 있게된 것은 어디까지나 이번의 경우에 누리는 하나의 우연이요, 이론적인 확률에 지나지않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떨어지는 하나의 그 위성앞에 불안한 비상태세를 도처에서 갖추고있다.

한때 지구궤도에는 아직 25개이상의 원자로위성이 돌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중 소련것이 16개이며 미국것이 9개로 짐작되고있다.

미국은 위험한 원자로위성발사를 중단하고있지만, 기술이 뒤떨어진 소련은 계속해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원자로위성을 쏴올리고있다.

우선 우리가 위험지구에서 벗어났다고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우리 땅에 떨어질 확률이 1만분의 1(과기처추정) 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장 위험한 원자로부분이 돌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궤도에는 지금 25개이상의 원자로위성이 돌고있고, 기술이 뒤떨어진 소련이 계속 쏴 올릴 것으로 보여 원자로위성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일것으로 기대된다.

78년1월 캐나다에 소련의 원자로위성이 떨어졌을 때 미국의 카터대통령은 소련에 대해 원자로위성금지를 호소한 일이 있었다. 미국의 호소를 뿌리친 소련의 횡포때문에 지금 세계가 두번째 희생을 당하고있는 셈이다.

모든 위성발사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등록하기로한 76년 협정보다 강력한 국제적규제가 급하다. 원자로위성은 인류평화의 이름으로 당장 금지하고, 또한 모든 인공위성 발사에는 「회수기술」의 개발을 조건으로 붙일 국제적 압력이 요구된다.

회수기술의 개발은 통신위성이나 자원탐사위성등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첨단기술산업에 상당한 코스트의 부담을 줄것이다. 하지만 멀지않아 포화상태가 될것이 분명한 지구궤도의 「교통정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있어야될 부담이다.

또 위성때문에 생기는 피해의 보상을 규정한 협정은 막연한 가능성을 전제로했던 72년당시와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오염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지우고,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쪽을 보다 유리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된다.

65년의 협정은 우주공간을 인류의 공유재산으로 선언하고있다. 그러나 이번 코스모스 1402호의 공포는 우주공간이 사실상 초강대국의 「독점무대」임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이 어쩔수없는 현실이라하더라도, 그때문에 공포나피해가 생기는 일은 용납할수없는 것이다. 65년협정의 정신을 재확인하기위해서도 위성발사 특히 원자로위성발사의 규제를 소련은 당장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피해보상에 관해서도 78년 캐나다에 대해서 소련이 억지를 부렸던것 같은 횡포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하나며, 잊어서 안될것은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해서 비상대책반과 기술지원단이 운영된 경험을 토대로하여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주공간에 눈을 돌리자는 것이다. 우주공간은 이미 우리의 불가피한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냉철하게 대응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自律운영과 公信力

—銀行法고쳐 鮮明하게 保障해야

公益기관으로서 信用과 健全한운영을 생명으로 삼아야하는 상업金融기관의 책임성있는 自律운영을 기하기위해서는 엄정한 考課기준에 의한 市銀人事의 자율화가 바람직하다. 동시에 預金者보호를 의무화하는 은행관계法規의 현실적인 개정보완이 또한 병행돼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差財務부장관은 이미 현시상 民營化된 4개市銀장들을 불러 오는 2월에있을 任員선임부터는 은행장이 책임지고 株主총회에서 이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시달했다한다.

지난날 官治金融慣行아래서는 사실상 재무부장관이 정부고위층의 意思를살펴가면서 시중은행理事職 하나에 이르기까지 선정內示하기 일쑤였다. 그러므로 이 관례를 깨고 민영화원칙에 따라 은행 스스로가 임원을 뽑도록 하라는것은 뜻이 크다하겠다.

앞으로 任員인사의 자체선임을 포함, 은행경영의 자율화가 어김없이 정착된다면 여태껏 官治金融의 너울을 벗지 못하던 상업금융기관들의 면모는 크게 달라질것이기 때문이다.

또하나 시은의 자율화나공신력과관련, 관심을 끄는것은 최근 대법원에서 商法上의 채권소멸시효에의거, 16년만에 저축예금잔액을 찾으려다가 거부당한 어떤 예금자의 소송이 敗訴로끝나진 사실이다. 즉 마지막 거래가 있은뒤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예금은 채권시효가 만료된것으로보고 되돌려 주지않아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게 그 판결 요지였다. 이는 현행 銀行法上 명문화돼 있는 예금자보호에 앞서 은행을 한낱 상법상의 영리法人으로 간주한데서 비롯된 법리적귀결로 보인다.

이와 관련되는듯 金融界에서는 재빨리 지상廣告等을 통하여 비록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는 공신력의 다짐을 밝혀 그 귀추를 주목케 하고있다.

이같은市銀人事의 자율화와 預金者보호의 한계라는 서로 무관한듯한 두 事案을 통하여 우리나라 상업금융기관이 내포하고 있는 그간의 모순과 불합리의 일단이 엿보이는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중은행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따르는 非制度的인 전통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다른 하나는 분명히 法制度上의 결함에서 비롯된것으로 볼수있기 때문이다.

본시 금융업무는 상업금융기관의 발달과정이 그러하듯이 법제도에 앞서 모든은행업무가 金利마진을 위주로 하는 상업금융적인 利害관계에 의거해서 결정·운영되는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人事역시 그같은 은행경영의 필요에 의거하여 외부간섭없이 스스로 결정되는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던 것이다.

한데도 근래 우리의 은행임원인사가 대개 정부측 의사에 따라 좌우되어진 까닭은 우선株式의과반수를 정부가 직접간접으로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감독권에 대한 불합리한 근거와 금융자금의 배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은행주식은 이미 민간에 불하돼 있는만큼 정부가 은행인사를 은행스스로에 맡기는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봐야할것이다. 이제부터는 다만 민간大株主들이 은행법상의 禁止條項인 利己的目的을 추구하기위하여 능력과 信望위주에 벗어나는 人事간섭을 자행하는일이 없도록 감독·감시를 소홀히 하지말아야 할일이다.

이런市銀자율운영을 계기로 예금자의 권익은 더욱 근원적으로 보호돼야한다. 그를위해 銀行法을 비롯한 은행관계법의 改正이 꼭 뒤따라야 할것이며 그때까지는 한은金融通委의 決議형식을 취한 과도적「指針」이라도 마련돼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은행법 제1조 目的조항에는 예금자보호가 뚜렷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실천 준수를 보장해야할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는것은 法體系상으로도 결함을 드러내고 있기때문이다. 금융거래란 公益에관한 것인만큼 商法에 따를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銀行法으로 이를 보장,금융의 공신력을 높여야 할것이다.

記者의 눈

平壤, 꼭 그래야만하나

22일은 全斗煥 대통령이 「平和統一의 章典」이라고 내외의 평가를 받고있는 民族和合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한지 1주년이 되는날이다. 또한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가 만날것을 18일국정연설을 통해 재촉구한지는 4일째다.

1년전의 이統一방안이 준 충격파문이 너무 넘어선지 北韓측은 지난해는 1월26일, 이번 再促求에는 3시간후에 엉뚱한 조건을 걸어 거부에 나서고있다.

이런 北측의 태도경색을 많은 국내외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1·22방안」이 가장 합리적인것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금년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나까소네日本수상은 최고책임자의 통일방안과 저들의 통일방안을 … 이라고 …

제의1년만에 이런 평가를 얻은 통일방안에 대해 北韓측은 지난해 1월26일 부주석겸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金一 명의의 담화를통해 거부태도를 밝힌 이후 국제무대에서 이를헐뜯는 행위를 일삼아왔다.

北韓측은또 18일 全斗煥대통령이 83년 국정연설에서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제의 및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저들의 통일방…

회담개최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등 全대통령의 統一의지에대해 『이같은 對話노력이 한국의 방위노력과 함께 韓半島의 평화유지에 기대하고 있다』고 韓日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응원하기도했다.

이 통일방안은 제의1년동안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통일방안과 노력이 열세에 있다는 일부평가를 반전시켜 이제는 주도권을 우리쪽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일치된 평가를 낳게 했다.

이같은 그들의 주장은 남북대화를 운운할때마다 그들이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해도 駐韓미군철수문제만을 의제로 못박아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그들이 이같은주장을 내놓은데는 …과 ▲최근들어 관계가 긴밀해지고있는 韓·美·日관…

안까지를 포함해 논의할것을 재차 촉구하자 3시간 후 『南北韓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駐韓미군의 철수문제를토의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포고 주장하고 나서 우리의 진정한 대화노력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그들이 주장한 「연석회의」의 알맹이는 駐韓미군의 철수문제를 토의하자는 조건을 내걸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가 조건없이 만나자는 우리측제의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그들의 이번 주장은 當局최고책임자間의 실질적인대화를 배격하고 군중집회식의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대화의場을 주한미군 철수문제의 선전장으로 악용하려는 책략으로 對話拒否의 강도가 어느때보다 경직돼 있음을 나타내는것으로 봐야겠다.

그러나 「1·22」나 「1·18」의 統一방안은 어떤 어려움도 民族的 차원에서 당국 최고책임자의 意志가 분명하면 풀겠다는 한국측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계의 離間과 국론 분열을 겨냥한 것이며 ▲오는 3월의 제7차비동맹회의서 「철군」을 골자로하는 「反韓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포석등의 저의를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들의 국제적지위와 외교환경이 반한선전의 무대로 삼아온 비동맹권내에서 조차 韓半島문제의당사자해결원칙을 들어 대화를 종용하는쪽으로 여론이 기울고있는데서초조감을 느끼고있기때문인것같다.

【河長春政治部기자】

上院議員 4選안해

베이커 共和黨總務

【녹스빌(테네시州)AP=聯】 하워드·베이커美상원공화당원내총무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84년 실시될 선거에서 4선을 노려 재출마하지는않겠다고 발표했다.

쿠웨이트 勞動장관

金총리를禮訪 환담

金相浹국무총리는 22일 하오 총리실에서 방한중인 쿠웨이트 사회·노동·주택성장관 마드·에사·알루자이브 쿠웨이트 사회·노동·주택성장관의 예방을받고 환담했다.

李外務, 뉴델리着

【뉴델리·방콕連合=聯】 李範錫외무장관은 3일간의 印度방문을위해 22일밤 방콕으로부터 뉴델리에 도착했다.

李장관은 印度방문중 23일 나라시마·라오印度외상과회담을갖고 한국정부의 한반도통일정책을 설명할예정이다.

한편 李장관은 泰國영자지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太平洋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는 아세안이 太平洋국가와 太平洋정상회담의 취지에 찬동하는 국가들과의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수 있을것』이라면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 프레이저濠洲수상, 트뤼도캐나다수상, 비타타필리핀수상등도 이제의에 깊은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比·카타르 勞動相

어제하오함께 來韓

블라스·포플 필리핀노동장관과 알리·아마드·알·안사리 카타르노동장관이 22일 하오 1시10분 대한항공 701편으로 金浦공항착 내한했다.

鄭漢株노동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한 이들 2개국 노동장관은 오는26일까지 4박5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며전국의 주요산업시설과 관문점등을 돌아보게 된다.

마크·혼칸 말레이지아노동장관도 23일하오 3시30분 내한할 예정이다.

人事異動

韓國保險公社
▲企劃調停局長 岩大▲檢査 秋…

國民銀行
1部長 李東雨▲指導部長 金容達▲調停部長 李基成▲保險事業部長 金勝濟▲總務部長 朴鍾男▲監査室長 李鶴俊(이상部長급7명)
▲관악사무분실개설준비위원장 李泰元▲영동〃李昇九▲북부〃鄭秀吉▲강서〃李治宗▲도봉〃尹賓模▲강동〃閔正基▲부산〃高和久▲인천〃吳勝博▲경기남〃梁榮哲▲광주〃金容植 (22日字)

政局往來

◆全대통령, 國產資材비율에 관심

全斗煥대통령은 22일 하오 서울 九老區 한국수출산업공단과 仁川市에 있는 中小생산업체를 약2시간30분동안 시찰, 週末작업중인 근로자들을 격려.

全대통령은 한국수출산업공단내의 南星電器공업회사에서 작업장 내부시설과 검사실 컴퓨터室등을 차례로 둘러 작업환경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으며 業개발공사 작업장에서는 제품을만들기위한 型틀을 직접만져보기도하는등 工程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女종업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종업원들을 위로.

全대통령은 이어 仁川市에 있는 大洋회사를 찾아 國產원자재비율등에 관해 관심을 보이면서『외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만들경우 그나라에 다시 국산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은 없는가』고 묻기도했다.

◆88년까지는 거름주고 農藥치고

柳致松民韓黨총재는 22일의 年頭기자회견에서 평화적政權교체에 대한「4대 前提조건」의 제의를 비롯, 정치被규제자에 대한 입장등 그의 「所信」을 보다 구체화시킨 「政治所信」을 25분간에 걸쳐피력.

이날 柳총재는 序頭에서 『이곳은 어느곳보다 지난날의 상처가 컸고 국민 누구나 그 상처를 하루빨리 아물게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기울였던 곳』이라면서 『특히 光州시민들이 어려움속에서 隱忍自重하며 참아온 결과 차츰 풀려지게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그는 또 『83년들어 우리가 염원하는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서 『정치被규제자들은 우리와 한食口로서 그들이 풀리는 날 우리는 雙手를 들어 환영할 것이며 한솥밥을 차릴것』이라고 다짐.

소속의원 20여명이 배석한회견에서 柳총재는또 『나의 기자회견이얼마나 제대로 보도되는지를 지켜볼것』이라고 말했는데 기자회견이끝난뒤 光州一高교정에 자리잡은 光州학생塔에 헌화한후 光州東·北區(위원장 林在正의원) 西區(池楨道의원) 개편대회에도 참석했다.

【光州=李成俊기자】

"被규제자들이 풀리는날 그들과 한솥밥 차릴것"

◆權총장 "舊態는 사라져야한다"

22일상오에있은 民正黨의 光州東·北區(위원장沈相宇의원) 개편대회는 이날의 柳致松民韓黨총재의光州기자회견이 있었기때문인지 19명의 의원이 대거참석한데다 박수와 함성이 있달아 터져나오는등 전날까지의 차분했던분위기와는대조적.

이날 權翊鉉사무총장은 光州지역모든 사람이 가슴에 응어리진것을 작년말에 청산한것은 全斗煥대통령의 정치적용단이었지만 그기초는 이지역 당원들의 단결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치하하고 『爲政者를 비판한것이 똑똑한 사람으로 치부됐던 舊態는 사라져가고 있으며 꼭사라져야할 것』이라고 강조.

위원장으로 재선된 沈의원은 『2년전 光州땅에 民正黨이 개혁의지를 높이 들었을때 대부분의 지성인은 고개를 돌리고 수근댔지만 이제는 우리黨에 대한 인식이 피부에느낄정도로 달라졌다』고 회고.

또 賀客으로 참석, 여성의원으로 유일하게 축사를한 李寧熙의원은 『女記者생활 4반세기동안 많은남성들을 만났으므로 남자보는눈은정확한데 沈의원은 남자중의 남자』라고 추켜세웠고 崔永喆보사위원장은 沈의원의 재치와 유머감각을칭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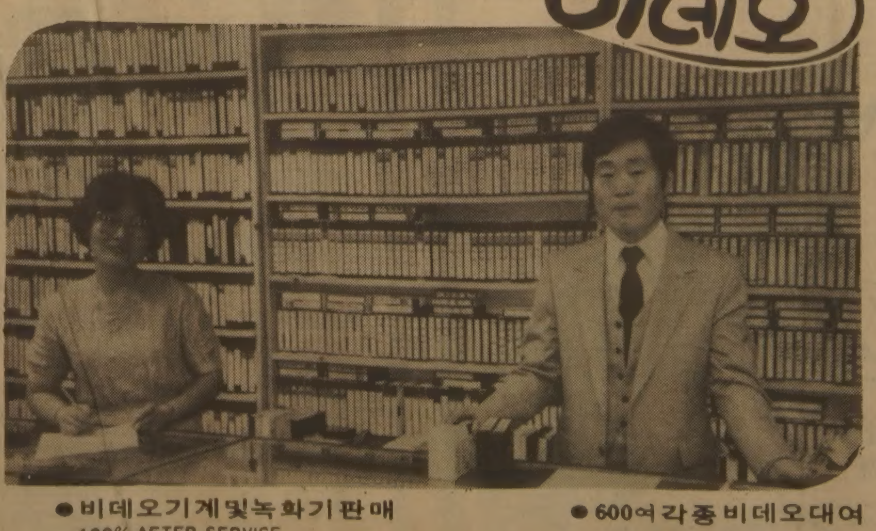
◆李충무, 解禁인사 迎入 時期尙早

大邱에서 野黨을 매섭게공격했던 李鍾贊총무는 22일하오에열린 경북 榮州지구당 (위원장 吳漢九의원)대회에서는 全斗煥대통령이 國政연설에서 밝힌 「先進조국창조」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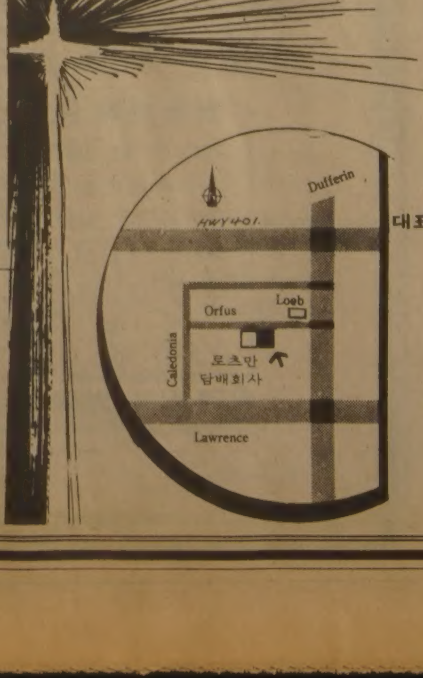
이날 李총무는『先進조국창조의 진정한 의미는 나와 우리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적, 주체적역량을 키워나가는것이 核心』이라고 강조했고 위원장으로 재선된 吳의원은 『새로운 和合정치실천의 役軍이 되겠다』고 소신을 피력.

한편 이에앞서 李총무는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解禁의 시기나 범위를 아직 모르는 단계에서 民正黨이 누구를 영입한다』 하지않는다는 얘기는 時期尙早』라고 밝힌후 『解禁되는 사람들이 舊시대의 정치行態를 버리고 새시대에 同參하겠다고 호소해오면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영입을 고려한 일도, 논의한 일도없다』고 단언.

【榮州=盧鐵煥기자】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600여각종비데오대여
678 BLOOR ST. W.
☎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도매상 Cash & Carry
DOMINION SMALLWARES
확장이전공고
한인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도매상은 아래의 장소로 확장이전하게 됨에 인사드립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라오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대표 Sol Dennis 쎄일즈·매니저 김근래 올림.


새주소 :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 : 789—7214—5
(종전과 같음)
이전날자 : 1983년1월4일(화)

아침 한때

人生은 마라톤과 같은것…

「大學4년」보다 더 먼 앞날을 내다보자

金亨錫 〈延世大교수〉

최선을 다하자

대학 입시의 소용돌이가 일단락 된셈이다.

많은 학생들이 소원하던 대학에 입학이 결정되었고 일부 응시가능은 더좋은 결과를 위하여 재수의 길을 택하게도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몇가지충고의 말을를 전해주는것이 좋을듯 싶다.

첫째는 대학에 적을 두게된 젊은이들을 위한 충언이다.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것은 인생의 소중한 경기를 출발하는것과 비슷할 것이다. 문제는 4년이라는 코스를 어떻게 잘 달려 소기의 목적에 도달하는가 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어떤 나라의 대학생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

나는 20여년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 들른 일이 있었다. 기숙사에 약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대학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기숙사 쪽을 바라보면 모든 방에 불이 켜진다. 공부를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그 불이 밤 열두시나 한시쯤 되면 잠시 꺼진다. 야반에 갖는 코피타임 때문이다. 30~40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이 켜진다. 코피타임을 끝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 불이 꺼지는 것은 새벽 4시나 5시쯤이 된다. 그것은 내일을 위해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3시간 또는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해내곤 한다. 그런 노력을 한학기 내내 계속한다.

내가 머물렀던 대학만이 그런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모두 그런식의 공부에 임한다. 읽어야할 과제가 많고 학점을 따기위한 부담이 크기때문에 그렇게하지않고는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수가 없다.

나도 두자녀가 현재 외국에서 공부하고있다. 가장 힘든것이 수면부족이라고 호소해오고있다. 머리의 부족이나 어학의 장벽보다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하곤 한다.

이런 미국 젊은이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 학문을위한 노력을 소홀히 여기고있는것같다.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전체시간의 몇분의 일이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승리는 최후에

금년부터 새로이 대학생활을 출발하는 학생들은 마음놓고 힘껏 공부하는습관을 길러주기 바란다. 4년 동안에 백리를 갈수도 있고 50리를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하면 30리에 그치는 학생들도 생긴다. 우리 모두가 백리길을 달릴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둘째로 주고 싶은 이야기는 일류대학에 입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는 학생들을 위해서이다.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 한 친구의 과거를 회상해 보곤 한다.

내 친구는 우리 정부의 차관직을 맡은바 있는 유능한 인물중의 하나였다. 그 친구는 자타가 인정하는대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2류 대학에 입학을 했다.

학교에 다니자니 창피하고 일년을 재수하자니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다. 얼마동안 고민하던 내친구는 한가지 결단을 내렸다.

「남들은 일류대학에 잠시나 4년동안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20년은 성의껏 공부할 테니까 그후에 누가 성공하는가 보자」는 결심이었다.

그친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대학을 끝내고 사회로 진출할때는 좋은 직장을 얻을수 있었다. 그리고 20년이나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은 정부의 고관을 맡게된 것이다. 오히려 일류 대학에서 4년만 공부한 친구들이 그의 뒷심부름을 하는 결과로 뒤지게 된셈이다.

나는 일류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젊은이들을 대할 경우에는 내친구의 이야기를 해주는 때가 있다.

인간의 일생은 4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의 경기는 20년에서 40년에 걸친 마라톤과 같다. 지금 당장 누가 앞서 있는가 함이 큰문제가 아니다. 누가 일생에 걸친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는가 함이 중요한 것이다.

세째로 주고 싶은 이야기는 대학입시에 낙방한 학생들을 위해서이다. 우선 우리는 인생의 길이 다 같지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류 대학을 나와서 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야하나 그것은 아주 소수에 그쳐야 한다. 중간성적을 가지고 사회에서 폭넓게 일하는 지성인들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원하는 일은 그들에게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원은 3백60도라고 배운다. 인간이 걸을수 있는길과 택할 수있는 방향에도 3백60가지가 있다. 그중의 얼마만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맡을 책임들이다. 그러나 3백60 중의 대부분은 대학출신이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나라에 가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클라스에 24명씩이 보통인데, 대학을 지망하는 숫자는 6、7명에 그친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제각기 적성에 맞는 사회의 여러가지 직업을 선택한다. 모두 학자가 되거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素質을 살려라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대학에 내는 등록금이 없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짜 공부를 한다. 그래도 대학을 지망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우리도 대학만이 꼭 인생의길이며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는 1972년 통계를 보고 놀란 일이 있다. 그 해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경제적으로 업적을 크게 남긴 기업체의 책임자 10명을 선정했는데 그들의 절대 다수가 대학출신이 아니었다는 통계였다. 지금도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안다. 실업계의 업적은 대학의 성적과 통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기야 미국의 워싱턴대통령, 링컨대통령, 벤저민·프랭클린, 카네기, 에디슨같은 세계적 인물들이 국민학교도 못나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성공의 길은 대학만이 아니라는 것은 쉬 짐작할 수가 있다. 나는 금년에 대학입시에 낙방된 학생들 중에 학문이 적성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욕심없이 재수를 단념하고 적성에 맞는 직장이나 사업으로 뜻을 돌리기 바란다. 인간에게는 다 자신의 갈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환경이나 사정이 여의치못해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한해를 모든 정성을 쏟는 재수생으로 유감없이 뛰어들어 잘못이 없을것이다. 인간의 일생은 일년을 앞 섰거나 뒤진것으로 평가되는것은 아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보다는 문제의식이 앞선는 인물이 더 큰일을 하게되며 공부를 잘하는것도 소중하지만 인간의 그릇이 커져야 훌륭하게 성공한다는사실을 알게 된다면 재수를 일년쯤한다는것은 오히려 내문제의식을 높이며 큰 인간의 그릇을 만드는 계기가 될수도있다.

대기만성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뜻이다.

어쨌든 우리는 언제 어디에 머물게되든지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가 되어야하다는 사실에는 잘못이 없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를 남기지않는 젊은이가 되어주기 바란다.

解禁인사 迎入환영 속으론 熟考·陣痛

改編앞둔 民正·民韓의 속사정

週末政局

○…全대통령이 國政연설에서 올해안에 1단계 정치被규제자의 解禁을 밝힌이래 국민의관심은 앞으로 解禁이 가져올 政界再編과 이에앞선 各黨의 움직임에 집중되고있다.

이러한 높은관심을 의식한듯 各黨은 비록 強度는 다르나 겉으로는 解禁문제에관해 「迎入」을 밝히고있지만 안으로는 벌써부터 熟考 고민 陣痛을 겪고있다.

이와함께 各黨은 熱氣가오른 지구당개편대회를 계기로 解禁문제와 관련한 攻防과 말의 盛饌으로 이래저래 전당대회를 앞둔 解禁政局은부산하기만하다.

静中動속 迎入방법등 모색

○…앞으로 단행될 解禁조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받지않을 民正黨이 지구당개편대회에서 解禁人士의 영입문제와 解禁의幅을 시사하는 내용을 밝힌것은 全黨대회이후 있을 앞으로의 政界再編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다.

지역구개편대회에 내려가 이문제에 대해 原論的인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解禁발표이후에 취했던 모습대로默秘權의 행사가 고작이라고여겨졌던 民正黨중앙 당직자들이 느닷없이 解禁문제에 폭넓은 언급을한것은 柳致松民韓黨총재가 22일의 光州기자회견에서 解禁에따른 얘기를 구체적으로 천명할것을예상、미리 「김을빼어놓자」는 계산도 있었지만 政局주도정당으로서 解禁이란 重且大한문제를 名實共히 주도하여 이끌어나가야한다는 속셈을 갖고있었기때문.

물론 民正黨이 解禁人士의 영입의사를 표했을때 올정치적 波長과 집권당의 實利도 면밀히 따져보았겠지만 豫告되지 않았던 언급이란점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民正黨당직자들이 解禁에 대한 소신피력의 내용은 ▲李載瀅대표위원의 解禁幅에 대한 시사 ▲權翊鉉사무총장 陳懿鍾정책의장의 解禁人士영입 ▲李鍾贊원내총무의 解禁에따른 野黨의 자세지적등으로 구별할수있다.

제일먼저 解禁에대해 입을 연 權총장은 21일 전남康津에서 『정치被규제자중에는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5공화국의 이념에 긍정적인사람이 많으며 民正黨은 모든사람에게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있다』고 말해 解禁人士의 영입의사를 분명히했다. 물론「기존정치질서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의 解禁」이란 단서가 붙어있지만 새시대주도정당으로 新人一色임을 자랑하던 民正黨의실력자가 舊정치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힌것은 政界에하나의 충격이었다.

뒤따라 李대표위원은 馬山에서 『두고보면 알겠지만 改悛의 情이 현저한 사람이나 新體制에 상당한 이해를 표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解禁의 幅을 전망했고 같은날 李총무는 解禁과 관련한 野黨의 자세에 대해 警告狀을 발부했다. 특히 李총무는 解禁문제로 긴장·부산한 야당을 끄집어『현역의원은 B級이며 아마이며 소위 在野인사들은 A級이고 프로란 말이냐』고 猛攻하기도했다.

뒤이어 22일 陳의장은 束草에서 『民正黨은 解禁人士중 새시대同參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으나 그들을 찾아다니지는 않겠다』고 말해 영입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같은 民正黨의 계속된발언은 한마디로 解禁에 따른 民正黨의 입장과 앞으로의政治構圖를 점치게하는 것이지만 李총무는 22일 「느닷없이 迎入論을 時機尙早라고 밝히고 나와 民正黨이 아직까지는 解禁에 대해 구체적 협의나 대책을 세워놓고있지않음을 感知케했다.

그러나 民正黨이 일단解禁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운을 떼었고 영입의사까지 밝힌이상 앞으로 解禁에 뒤따른 여러가지 얘기는 더욱 활발할 것이다.

○…野黨보다 한달가량 늦게 지구당대회에 착수한民正黨은 우세한 黨力과 기동성있는 조직으로 대회의 熱氣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특히 중앙당 5개격려반이 대회始發日부터 지방을 순회하면서 週末에도 上京할 생각도 하지않아 그야말로 總力戰을 전개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 갖가지정책과 야당에 대한政治性 공격도 서슴지 않아 百花齊放의 형세로 嚴冬의 政局을 주도하고있다.

이러한 民正黨의 지구당개편대회 자세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野黨개편대회의 정치열기를 제압하면서 전국에 民正黨붐을 조성、12代총선에서 또다시 壓勝을도모할 바탕을마련하자는등 多目的의미를 갖고있다.

그러나 당직자들의 「말盛饌」과는달리 대회의 모습은 중앙당 지시대로 一絲不亂하게 진행되고있어 劃一과통제의 대회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예컨대 대회장에 「우리는 평생동지、黨과 조국에 충성하자」「국민은 즐겁게、당원은 신나게」등의 구호를 붙이되 대회장밖에는 일체의플래카드를 붙이지말라는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어느지구당도 어기지않아 위원장의 財力·취향에 따라 各人各色의 모습을 보였던 野黨대회와는 달리 「판에박은 대회」라는게 衆評.

○…嶺·湖南을 橫으로 건너뛰어 붐을일으키며 北上하고있는 民正黨지구당개편대회는 날이갈수록 熱度를 더해갈것이 분명하며 이같은 民正黨의 對野공격은 자칫하면 與野의열띤 攻防戰으로변할 가능성도 많다. 특히 民韓、국민당이 2월초순 全黨대회를 끝으로 집안의內紛을 일단락 지을경우 야당은 民正黨의 이같은 자극적태도에 분발、對野자세를 경화시킬 가능성도 없지않은 것이다.

○…1단계解禁조치가 천명된뒤 静中動의 표현대로속으로 가장 긴장 고민한는것은 역시 民韓黨.

民韓黨은 11代국회가 출범한이래 줄곧 정치피규제자解禁을 전의、요구해온터이어서 1단계 解禁이 밝혀졌을때 「환영—門戶開放」을 밝혔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과연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인사들이 풀릴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解禁문제에 관한 民韓黨의 입장은 柳致松총재의 光州회견에서 어느정도 그受容의방향이 잡혀졌다고 볼수있다.

民正 기존秩序 해치지않는 幅서

民韓 現役의원들과 調和에 고심

柳총재는 회견에서 이른바 「한솥밥의 論理」를펴 눈길을 모았다.

그는 본시 被규제자와 우리는 한食口였으며 규제에서 풀리는그날 우리는 雙手를들어 환영하며 한솥밥을 나눌것이다. 그리하여 제1野黨의 陣容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또 解禁者의 迎入을위해 그들의 의견을 참작 모든조치를 다하겠으며우선 16개事故黨部중 해당자는 조직책人選에 우선권을 주겠다고까지 밝혔다.

이같은 천명은 解禁者에대한 단순한「合流환영」을 넘어 적극적인 受容의사를 밝힌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이「雙手로 환영—受容」으로 解禁者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같다.

柳총재의 이러한 원칙천명은 第1野黨으로서 解禁문제는 언젠가 풀어야할 최대의 숙제이자 難關인데다가 오래전부터 규제된 舊野黨인사들의 보이지않는 어깨너머 간섭과 영향、소리없는 입김등으로 머리를 앓아온터여서이문제를 회피 외면하지않고 正面으로 맞서 다루기로한것으로 보여지고있다.

어차피 宿命的(?)으로 오랜舊緣을 갖고있는데다 어차피 언젠가 손을잡아야겠다면 미리 적극자세로 이문제에대한 원칙을 마련해놓자는 계산이 담겨있는것이다.

가깝게는 우선 눈앞에둔전당대회를계기로 黨體制를全面刷新해야하는 입장에서 관심은 1단계 解禁者가 어느정도의 정치경력을 가진인사들이 얼마나 언제 풀린것인가에 모아져있다.

○…물론 解禁者들이 들어온다해서 당장 黨職을주거나 現役을 제쳐놓고 지역구를배정한다는것은 있을수없다.

문제는 첫解禁者에대한處遇여하에따라 後續될 인사들의 입김도 좌우될것이기때문에 당으로서는 그렇게 들어오는것으로 손을 씻을수만은 없을것이라는 얘기들이다.

우선 黨職의 경우 柳총재가 회견에서 말했듯이 부총재외에 당무위원 중앙상무위원등을 餘分으로 마련해 놓고있어 그다지 큰문제는 없는듯하다.

그러나 지역구의경우 緣故權문제가 제기될가능성이 크며 이런한 소리없는 논란이 쌓일경우 黨사정도 편치않을 것이어서 마음을 놓을수는없을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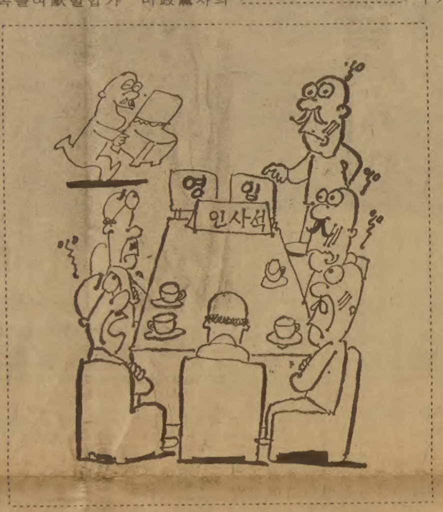
이들은 과거와 對等내지과거體質·體制로의 再生환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새野黨에 舊人士들이同參、合流하는형식이 돼야한다는 논리를펴고있어 앞으로의 정치상황과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民韓黨의원들의 깊은 고민은 81명소속의원중 전국구24명의 의원을 제외한 57명의 지역구의원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명의 의원이 舊野圈출신의 被규제인사들과 지역구를 함께하고있다는데서 비롯되는것이다.

被규제의원과 民韓黨 지역구의원이 부딪치는 26개지역은 ▲서울이 14개지구중 8곳 ▲釜山이 6개중 3곳 ▲京畿 10개중 2곳 ▲江原 6개중 2곳 ▲忠北 4개중 한곳 ▲全北 7개중 2곳 ▲全南 11개중 4곳 ▲大邱 3개중 한곳 ▲慶北 10개중 2곳이다.

아무튼 民韓黨은 辛전총장의 競選포기로 새로운 고비에 접어든 셈이다.

【李成俊·李以春기자】



메아리

죽느냐 사느냐

제목에 끌려서 시선이 갔다.

『피아노 위의 고양이』

제임즈·커컵이란 영국사람이 쓴 詩다. 이런 내용이다.

어두운 밤중에 고양이가 피아노 건반위를 걷는다. 걸음을 따라, 피아노가 울린다.

『만일에 백만마리 고양이가,
백만대의 타이프라이터를,
백만년 동안 두드려서,
셰익스피어의 詩 한줄을 쓸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피아노 위의 고양이가 엮어낸 「한밤중 우연의 傑作」은 「침묵의 曲」…. 이렇게 詩는 끝을 맺는다.

읽어서 얼마나 잘된 詩인지는 모르겠다. 그저 「백만마리 원숭이…」의 비유가 기억에 남아 있다.

과연 「백만마리 원숭이」는 셰익스피어의 詩 한줄을 쓸 수가 있을까? 예전 몇 세기에 걸쳐 서양中世 思辨家들의 시간깨나 뺏었던 물음중의 하나다.

이 물음을, 미국 예일대학의 물리학자 윌리엄·베네트박사는 컴퓨터에게 물었다. 원숭이 대신 컴퓨터가 타이프라이터를 마구잡이로, 차게 해서 셰익스피어의 대사 한줄이 나올 공산을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햄릿트중에서 가장 흔가 난 다음 세리프는 어떨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실험을위하여 이 말이 나오는 햄리트 제3막의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서 알파베트의 사용빈도를 프로그래밍 한다. 이것을 써서 컴퓨터를 쉴없이 작동시킨다.

그래서 컴퓨터원숭이가 「to be」를 찍어 내는데 3일이 걸렸다.

다음은 알파베트 2자가 차례로 쓰이는 빈도, 그다음은 3자가 차례로 쓰이는 빈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 원숭이」가 실제의 단어와 같은 글자를 찍어 낼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순열과 조합, 확률 이론으로 하면, 「원숭이」가 셰익스피어를 찍어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네트 박사 계산에 의하면, 그확률은 詩人이 생각했던 「1백만 단위로는 어림도 못낼 만큼 작다. 1조마리의 원숭이가 1조대의 타이프라이터를 1초에 10자씩, 우주가 생성된 시간의 1조배에 달하는 세월동안 두들겨야 한다니까—. 그 것은 무한히 零에 가까운 가능성, 實感으로는 불가능이나 다름없다.

몇년에 걸친 베네트 박사의 실험은 물리학자의 심심풀이가 아니다. 사람의 뇌와 컴퓨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려는것이 그 목적이다.

사람의 뇌는 1백40억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다. 만일 1백40억개의 진공관을 써서 그만한 컴퓨터를 조립한다면 어떤가. 하루 1만개씩의 진공관을 조립한다고 치고, 약1만4천일 약 4천년이 걸린다. 그다음에는, 그 큰덩치를 어디에다 수용한다? 사람의 뇌는 겨우 1천5백g 분량이라, 목위에 얹어 놓고 다니지만….

그러나 뇌와 컴퓨터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용량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쓰게 했던 사람특유의 理性과 感性—創意力이다. 創意力이 있는 사람과 創意力이 없는 컴퓨터를 맞 바로 비교함은, 사람과 자동차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뜻이 없다. 자동차는 사람 보다 빠르게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사람보다 빠르다. 그러나 자동차는 아무리 빨라야 자동차일뿐이다.

컴퓨터에 셰익스피어 全文을 入力해 주면, 「죽느냐 사느냐…」쯤 몇10만분의 1초에 찾아낼수 있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셰익스피어 아닌, 컴퓨터 스스로의 「죽느냐 사느냐…」를 기대할 수는 없다.

베네트 박사의 실험이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지는 모르나, 그 중간결과는 하나의 寓話나 같다.

우리는 지금 「백만마리의 원숭이」 대신 「똑똑한 원숭이」를 얻어서 「죽느냐 사느냐…」를 쓸수 있기를 기대하는 꼴인지도 모른다.

4選肢選多型이란 이름의 시험이 그런 것이다. 이 시험은 남이 入力한 데이터를 出力하는—아무리 해봐야 컴퓨터의 몇10만분의 1에도 못미칠 능력을 겨루고 상을 준다.

그리하여 4천만이 모두 「똑똑한 원숭이」가 되는날이 온다면 어떨까. 그래봐야 스스로의 「죽느냐 사느냐…」한줄이 안나온다는 것이 앞서보인 寓話의 함축이다.

그런나라에 합당한 이름은 「원숭이 나라」다. 결코 先進國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교 회 안 내

가나안교회	이정춘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742-7010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621-6340
키치너워터루교회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519)579-0954
런던제일교회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519)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10: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5 McCowan Rd.	298-1876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기도 밤 9:00	662 Pape Ave. Tor.	266-4918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694-9691, 266-8820(R)
해밀턴연합교회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중앙한인연합교회	김택규	주일오후 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922-0605
한인교회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1:30	69 William St. Weston	243-9543, 743-8082(R)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446-1211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illegible] Finch Ave. W.	630-428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한국일보 특집판

연재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現代史의 現場 ⑫

題字 原谷 金基昇

東學혁명의 旗手

全琫準

除暴救民 앞장선 「녹두장군」

民衆·봉기를 革命으로 승화

東學혁명의 기수 全琫準。탐관오리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 호남벌 농민을 주체로 민중봉기의 횃불을 높이 든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집, 농민들의 뼈저린 원성의 대상이된 만석보(萬石洑), 그를 지도자로 떠받들었다는 말목장터, 동학접주들이 사발통문을 돌려 모의한 마을, 동학군이 관군과 보부상들을 무찌른 黃土峴등이 모두 전북 井邑郡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의 감회를 새롭게 한다。

井州市에서 북쪽으로 梨坪가는 새마을 도로를 따라 12㎞쯤 가면 永元과 新泰仁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타난다. 삼거리 바로 옆으로 井邑郡 梨坪面사무소가 있고 맞은편에 지금은 농촌지도소가 돼있는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보인다。

馬項里보다 말목장터로 더 알려진 이 마을이 동학농민봉기의 진원지로서 감나무아래서 全琫準을 지도자로 추대했다고 전해진다。

말목장터 삼거리에서 동북쪽으로 新泰仁을 향해 3㎞쯤거리에 內藏山국립공원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정읍천이 동진강과 합류하는지점과 만나게된다. 만석보자리가 바로 여기다。

당초 농민들은 두 하천에 각각 보(洑)를 쌓고 농사를 지었다. 부근의 농리이름을 따서 禮洞洑라 하였다. 이 보는 아무리 혹심한 가뭄에도 고부땅 배들(梨坪)의 너른 평야만은 매년 풍년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일명 만석보라 불렸다。

그런데 1892년(高宗29년)에 새로 부임한 古阜군수 趙秉甲이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되는 그 아래에 보를 높이 막는 役事를 시작했다. 자연히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키는가하면 공사에 쓰이는 말뚝목으로 수백년 묵은 거목을 마구 베어다 썼다。

이에 농민들과 상주들의 원성이 높던차에 보를 높이 쌓은 뒤로 홍수가 지면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에서는 홍수피해를 입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을에는 보세(洑稅)라 하여 한두락당 상답은 2말 하답은 1말씩을 징수하니 원성은 더욱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에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환곡이란 제도가 있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정부양곡을 꾸어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제도가 그것이었다. 이 환곡이 빈민구제는 커녕 도리어 탐관관리의 농민착취도구가 된것처럼 만석보는 배들농민들을 쥐어짜는 도구가 됐던 것이다。

당시에 만석보를 막아놓고 받아들인 보세가 禮洞 斗田 白山 세곳서 7백석에 달했다하니 호남벌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짐작할만하다。

오늘의 만석보 흔적은 어느 하천구석에서도 찾을길이 없다. 다만 지방부형문화재기념물33호(76년4월 지정)로 만석보遺址碑가 덩그렇게 동진강 제방위에 섰을뿐이다。

동진강 제방은 옛날에 없던것을 日帝강점기간에 쌓았다. 제방에서 바라다본 배들이 과연 넓게 펼쳐져있다. 조선말기 가뭄이 극심하던 때도 흉년을 몰랐다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준다. 만석을 거두어들이는 풍년의 들녘은 오늘에도 변함이 없는것같다。

만석보 유지비가 세워진 제방에서 내려와 처음닿은 鐵洞마을 어귀에는 군수의 선정비가 또하나의 웅변을 토로하고있다. 郡守 安吉壽 萬石洑革罷善政碑가 그것이다. 1898년 면민들이 세운 이 빗돌은 趙秉甲후임으로 온 군수가 만석보를 폐지한데대한 감사의 표시였으니 만석보로인한 원성이 얼마나 높았기에 이를 없애준 군수에게 혁파선정이라 칭찬했겠는가。

다시 말목장터로 돌아와서 永元쪽으로 조금 가다가 서북쪽으로 3㎞남짓 들어가니 행정구역으로 梨坪面 長內里 조소부락이다. 이곳에 全琫準장군의 舊居(또는 故宅址)가 있다。

대지68평이라지만 좁은 마당에 방세과 부엌이 나란히 달린 토방집이 지방문화재라는 푯말이 보이지않고 마루에 방명록이 없었던들 여느 시골집과 조금도 다를바가없다. 처음에는 지방문화재기념물이었다가 81년11월에 사적293호로 지정되었는데도 안내판은 바꾸어지지 않았다. 옛집 왼편에 있는 초가를 사서 헐고 있는데 앞마당을 더 보태어 조경을 끝낸다음 관리사무실을 새로짓는다는 계획이 세워져있다。

全琫準이 태어난해는 1853년(哲宗4년)이고 조소부락의 사적으로지정된 이 집이 살았던해가 1878년이므로 그가25세이후에야 이 집에서 살았다는 계산이된다. 아니면 민중봉기를 알린 수년간만 살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가 동학혁명의 뜻을 세우고 결행할때 살았던 집인것만은 확실하다。

전북井邑郡新泰仁邑平和洞에사는 宋基泰씨의 가전유품속에서 지난68년 발견됐다는 사발통문에 의하면 古阜농민들의 봉기는 甲午전해인 가을부터 계획한 것으로 돼있다. 배들농민들은 다짜고짜 봉기한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만석보의 보세감면을 고부군아로 찾아가 진정했다。

그러나 군수 趙秉甲은 진정을 들어주기는고사하고 오히려 양민을선동한다하여 두목 몇사람을 구금해 버렸다. 이때 구금된 3명중의 하나가 全琫準의 아버지 全彰赫이다。

全彰赫은 고부군아에 갇히어 매맞아 죽었는지 조소부락 자택에 돌아와 한달만에 장독(杖毒)으로 죽었는지는 기록마다 다르게 나타나있다. 다만 이사건으로 인해 趙秉甲이 益山군수로 전임발령이 났으므로 미루어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던것으로 추측된다。

농민들의 진정사건으로 군수전임발령이 나긴했으나 趙秉甲이 전임됐느냐하면 그렇지가 않았다. 1893년11월말부터 한달간 5명이 고부군수로 발령을받았으나 받는 족족 신병을 핑계로 그직을 사퇴했다. 사퇴이유는 보나마나 吏曹관서 沈相薰과사돈지간에있는 趙秉甲이 고부고을을 떠나지않으려는 유임공작을 폈기 때문이다。

때맞추어 전라감사는 고동안 밀린세금을 천사하려면趙秉甲을 유임시켜야한다는 요청을 내기에 이르니 이것이 농민들이 분노를 터뜨린 기폭제가된 것이다. 이때 농민들을이끌고 선봉에나선 3狀頭의 하나가 全琫準이었다는 결론이다。

그는 조소부락에서 대통이어 거주하던 토호는 아니지만 學行을 겸비했음은 아니라 그행적이 초범해서 곳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기에 충분했다. 동학에 입교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동학을 좋아하는 까닭은 修心敬天의 道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러나 교를 행세하지는 않았다고 공술서에서 그가 밝힌 바있다。

甲午東學革命史를 출판했고 全琫準을 오래 추적해온 향토사가 崔玄植씨(60 井州市長明洞170)는 그가 유명한 接主도 아니었던것 같으나 한인간으로서 너무도 훌륭했다고 감동있게 설명한다. 흔히 全琫準이 고부군아를 습격한 이유가 그의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타당치않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全琫準의 행적을 보면 과국지세로 고을을 쳐들어 갔을때, 아전한명 다치게 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어느 한구석 감정의 표시가 없는 점을 훌륭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古阜습격의 거사는 1894년1월10일밤을 기해 이루어졌다. 배들을 중심으로한 10여 부락의 농민을 동원하여 禮洞마을에 召募를 소집하니 수천을 헤아리는 군중이 모여들었다. 이때 全琫準은 趙秉甲의학정을 낱낱이들어 설명한후 除暴救民을역설하니 원(寃)에 사무친군중들은 환성을 지르며 호응하였다。

이날 全琫準은 군중을 두대로 나누어 고부로 향하여 새벽녘이 되어 동헌을 습격하였으나 군수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습격소식을듣고 읍내에서 2㎞떨어진 立石里 眞仙마을로 몸을피했다가 全州감영으로 달아났던것이다。

그러나 전라감사 金文鉉은 고부사건을 조정에 알리지않고 진압하려 들었다. 그것은 얼마전에 趙秉甲을 유임요청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全琫準은 전라전세에 짓밟히고있는 민권을 구하려는일념에서 동학군을 영도하였으니 그야말로 위대한 혁명가요 사상가였다。

녹두라는 별호는 그의 체구가 왜소한데서 비롯된 것같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전주 고부 녹두새야/어서바삐 날아가라/댓잎 솔잎 푸르다고 봄철인줄 알지마라/백설이 휘날리면 먹을것다 없어진다』 全琫準이 빨리 진격해 주기를 바라는 동요만이 남아 애처로움을 더해줄 뿐이다。

녹두장군이 살았고 민중봉기의 횃불을 진원지는 모두 고부땅이지만 그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高敞邑竹林里堂村과 井邑郡山外面東谷里 곳이 떠오르고 있다。

天安全씨족보에 의하면 선대의 세거지가 전북高敞郡新林面蓮松里로 선영 또한 이곳 承輔에 있다. 종친의 한 사람인 全鍾洪씨(全琫準유허비 건립회장)는 堂村은 碧松里와 고개하나 넘어 10리만 락의 거리에있고 마을노인들의 증언을 참작 高敞출생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있다。

吳知泳이쓴 『東學史』에도 고창 당촌에서 출생하여 完州高山 古阜陽橋里(양간다리)·조소부락 泰仁山外面 山內東谷里로 옮겨다녔다고 했고 張奉善의 『全琫準實記』에는 全州태생으로 양간다리에서 조소부락으로 이사하였다고했다。

全琫準의 할아버지가 高敞선영을 떠나서 平沙落雁 명당설로 유명한 井邑郡山外面東谷里 지금실이란 심산유곡으로들어간사실은여러갈래 가지자료에서 잘드러나있다。

全琫準은 公州결전에서 패한후 泰仁싸움을 최후로 수행 몇명과 그해12월 高敞가는 길목인 淳昌산성으로 들어가 몸을피했다. 때마침 남하하는 일본군과 관군이 추격해 온다는 정보를듣고 白羊寺에 숨었다 다시 동지를 찾아 山內面宗聖里로 가는도중 전북 淳昌郡雙置面避老里에 이르러 왕년의 친구집을 찾아들었다가 이웃의 밀고로 잡힌 몸이 되었다。

潭陽에있던 일본군에 인계되어 羅州 全州를 거쳐 서울에 도착해서는 일본영사관감방에수감되었다. 全琫準은 다섯차례 일본영사의 심문을받고 1895년3월29일 최후를 마치니 그의 나이41세였다。

우리민주주의 선구자요 최근세민족의 영웅으로 일컫는 그의 사적은 井邑과 高敞을 비롯한 호남벌 도처에 자리잡고 있어 90년전의 함성을 오늘에 다시 들려주고있다。

그의 옛집이 있는 조소부락 뒤편 잔솔이 오롯하게 심어져있는 야산에는 「甲午民主倡儀統首 天安全公琫準之壇」이라 새긴조그만비석이 있다. 그의 없어져버린 묘소대신에 만든 設壇인것이다。【李忠雨기자】

◇古阜땅 기름진 배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동진강제방위에 세워진 萬石洑遺址碑。만석보는 농민봉기의 기폭제가 되었다。

◇전북井邑郡梨坪面長內里 조소부락 사적293호로 지정된 全琫準의 舊居。

【李基龍기자찍음】

時代의 混沌이 만들어낸 英雄

民亂은 東學의 外延이며 東學은 民亂에 內包

申福龍

〈政博·建國大교수〉

역사의 한 章에 明滅했던 어느 人物史를 다룸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부딪치는 전제적 질문으로서는 과연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것이냐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난날 英雄中心主義 史觀이 風靡하던 시대에는 당연히 영웅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인 양 역사를 기술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英雄崇拜論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論旨는 역사의 주체 또는 추진력으로서의 民衆的 底力을 과소평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人物史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 주인공을 美化하는것은 그를 卑下하는 것에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다. 인물사는 플루타크가 일찌기 지적했듯이 인간적인 행적의 역사이어야지 凡人이나 匹夫匹婦와는 차리가 먼 英雄談으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런 점에 있어서는 全琫準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全琫準의 생애를 조명함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그의 행적을 年代記的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止揚하고 이제는 그의 행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수 있을까 하는 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할때 全琫準의 생애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그와 東學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하는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우리는 全琫準의생애나 東學亂을 거론함에 있어서 의문이나 논쟁의여지도없이 그가 東學敎徒였고 古阜 接主였다는 사실을 기정화하고있다. 한 인간이 어느 宗敎를 信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하는 문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필요 조건충의 하나를 충족시켜야한는데 첫째는 그가 어떤 宗敎를 최고의 가치(敎援의 眞理)로받아들이는「信仰告白」을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점이요, 둘째는 그가 「入敎儀式」을 밟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인간이 어느종교에 대하여 호교론적인 입장을 취한 사실이 있다는것만으로는 그가 그종교를 「信奉」했다고 말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학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神父가 불교를 공부할수도 있고 목사가 巫俗에 긍정적으로心醉할수도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神父가 불교를 공부했다고 해도 그는 어디까지나 천주교도이지 그가 佛弟子일수는 없으며 목사가 巫俗을 탐구했다고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기독교신자이지 무당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全琫準의 생애를 예의탐구해보면 그의 행적이나 언행 그리고 文籍의 어느곳에서도 그가 東學敎徒로서 신앙고백을한 사실이라든가 입교의식을 거행했다는점이 사실로써 입증되지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두가지 사실 중의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점에 있어서 全琫準이 東學敎徒였다거나 古阜 接主였다는 野史的인 기술은 이제 재조명내지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는 소위 甲午東學亂의 성격을 구명함에 있어서 東學이라는 종교적 인자와 민란의 인자에 각각 어느정도의 비중을 두어 설명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學的論理는 동학란의 추진력은 역시 東學이라는 이상주의적 개혁의지였다고 본는 견해가 많았고 따라서 1894년의 일련의 사태를 「東學亂」또는 「東學革命」이라고 이름짓는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세칭 동학란에 대한 이런 식의 의미부여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甲午東學亂의 독립변수는 東學이 아니라 朝鮮王朝말엽에 맥맥히 이어온 民亂의 성격이었으며 東學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하나의 종속변수에지나지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리를 좀더 명료하게 전개한다면 東學의 인자가 없었더라도 1890년대 후반의 민란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민란의 脈絡이 없었더라면 東學亂은 일어나지않았을 것이다. 아니 좀더 간명하게 표현한다면 東學자체가 民亂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混沌)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민란은 東學의外延이며 동학은 민란에 內包되는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종합해 본다면 全琫準은 민란의 지도자로서 東學을 방법화한 인물이지 그가 東學이라고하는 宗敎的信心에서 역사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東學도그리고 全琫準도 朝鮮王朝후기에 머리를 들기 시작한 민중적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난 시대적 산물일 뿐이다。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8局第6譜 74~102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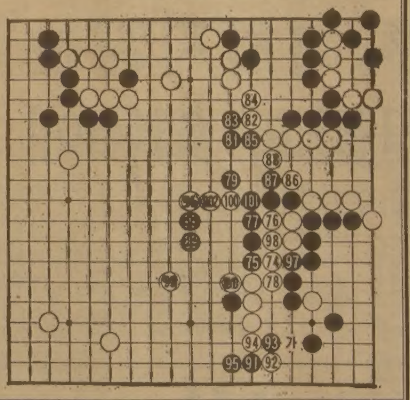
白 (6段) 徐 能 旭 〈1敗〉

黑 (7段) 徐 奉 洙 〈1勝〉

우상귀 침입군을 패로 전멸당한 白은 74로 잇고 중앙에서 승부를 걸어보려했다. 그런데 아직도 흐름맞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는지 본보의 과정에서도 계속 이상한수를 두어버렸다。

우선 白76이 공연한수, 이런수는 되도록 보류해야 된다는 종론이다. 다만 白82는 『결과야 어떻건 지금현재 이렇게해서 중앙黑을 노려야한다』고 그런대로 찬동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黑85가 과격한 때문에 白은 86, 88로 반격, 중앙黑을 위협에 허하게 만들고 참말로 꿈가 보여주는가 싶었다。



白, 勝負手 연발

한데 白90. 이것이 또 완착이다. 그뜻이야 어떨는간에 첫째 너무나 엉성해 보이고 그보다 당장 黑91로 밀을 흩어낸 수가 호착이어서 95까지 白은 실리를 크게 잃고 말았다。

白90은 일단 91자리에 뛰고싶다는 의견이 지당하게 여겨지는 장면이다。

수순중 白94에도 異論이 많다。『뒤늦게나마 95자리에 양볼입하여 하변을 확보해야 애써둔 白90의 「체면」을 세울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徐6단은 白94로 끊어놓고 계제보아 白「가」로 치켜모든 수를 노린 모양인데 어떨는지。

과연 白96으로 위협할때 黑97로서 白「가」의 맛을 해소한것이 민첩해서 白은 허탈을 친셈。이에 이르러 白100, 102로 또 다시 승부를 걸어야 했다。

【一凡】

理性과 종교

길

◇韓景職◇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성은 우리 인간의 심령 생활을 지배하는 신앙 혹은 종교와 큰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성을 무시하면 온갖 미신에 빠지기쉽다。이성을 통하여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것을 인간의 속과 그 만드신 만물 곧 대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하였다。(롬1:19~20) 곧 우리가 이성의 등불을 밝혀 인간을 바로 이해하고 이 우주와 대자연을 바로 볼때에 이모든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품성을 알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신앙세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이성을 통하여 성경의 바른 교훈을 분별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광복 이후에 상당한 수가 현대 과학교육을 받았다。그러나 아직도 온갖 미신은 우리 사회에 범람한다。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나 어떤 이들은 현대식 기계를 도입하고 공장을지어 놓고도 먼저 돼지머리를삶아놓고 고사를 지낸 다음에야 가동을 시작한다고한다。

우리사회가 사실 근대화 되려면 온갖 미신은 쓸어 버려야 한다。이성의 등불을 밝히자。

張吉山 〈1647〉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7)

박거사는 그렇게만 말하는데 전생이가 코를 훌쩍 하며니 말을 꺼냈다。

『혼례를 올려 준다구 하든데요』

『누구… 송화의 식구가 장가란두 했었나』

이경순이 무심히 지나치며 중얼거리더니 전생이가 다시 말하였다。

『아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맺어 준답디다』

『죽은 넋을 맺어 준다니 그게 무슨 얘기유?』

묘옥이 되묻자 전생이는 빙긋이 웃었다。

『넋을 알아요? 이름쓴 지방을 태우고 옷을 태우고 그러는데요』

박거사가 덧붙였다。

『그전에 그 검계 혈당에 들었던 산지니라구…총루 저자에서 참수당한 아이생각나시우?』

『음, 벌써 네 해나 되었군。그때 중길이네 식구들도 많이 잡혀 죽었고, 검계에서는 그 총각 한 명이었지?』

『형조의 관문 박에서 저희 녀이가 목을 매어 자진했지요』

이경순은 박거사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는듯한 안색이었다。

『색시 넋은 또 누구유?』

묘옥이 다시 물었고 박거사가 말하였다。

『재작년 홍역이 오죽 심했나。그때 중길이네 식구들이 견디다 못하여 행음령으루 이사하였지。작년에는 또한 염병으로 아예 폐촌이 되어버린 동네두 많았소』

『지난두 해를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우리두 작년까지는 죽으로 끼니를 때우다시피 했어요。이젠 곡식두 나누구 장사도 다시 되니까 한시름 놓았지만…』

『아직도 유민들은 각처로 몰려 다니구 있지。헌데중길이네 식구들은 서로 단단히 뭉쳐있어서 집털이도 하고 상고의 보따리도 뒤져서 근근히 넘긴 모양이더군。작년에는 곡식이 귀하여 무명이나 은자를 가지고도 낟알 한톨을 씹기가 어려웠거든。그래두 도성 안의 대가집 가노들과 연줄이 있어서 때꺼리는 끊이지않고 간신히 대었다더군。그 무렵에 비명횡사한 처녀가 있답디다。왜 그 중길이가 늘 어머니라구부르던 아주머니 생각나지요?』

이경순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쌍이문밖에서 바칭술집을 하던 모녀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남의 손금이나 상을 잘본다구 그랬던가』

『예, 맞습니다。바로 그 아주머니 딸이지요』

『그래 딸이 있었지。아마 살았다면 꽤 과년했을게야』

『중길이 네는 차례를 두어 섬내로 들어가거나, 곡식을 갈춘 부자집에 발들을 가져다 헐하게 바꾸어 오자나 하면서 식구들의 양식을 대었던 모양입니다。그 처녀와 몇몇이 교하에 나가 메조 두어되를 바꿔서 새원까지 왔다지。처녀가 자루를 가지고 있었고, 일행들은 먼저 삼거리를 돌아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처녀가 쫓아오지를 않더라나。그래서 허겁지겁 오던 길로 달려가보니까, 처녀가 괴부섬이가 되어 넘어져있고 곁에는 다른 행인들 몇이 쓰러져 있었다지요』

이경순은 박거사의말에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때는 그랬었지。어미가 제 자식을 잡아먹을 시절이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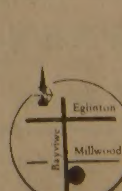
533-2361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틀.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원

도깨비 안의섭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病·醫院 처방전 發行급증

木浦市 지역保險 定着가능보여

2종(지역) 의료보험 시범지역인 木浦市의 병·의원에서 올들어 처방전발행이 급증하고있어 지역보험의 정착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2일 보사부에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약사가없는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하루 평균 4백64건으로 작년도의 하루평균 17건보다 무려 27배나 크게늘어났다。

木浦市약사회가 집계한 처방전발행실적(약국접수분)은 올들어 지난19일까지 모두 3천7백12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방전발행담당자들인 의사회측에서는 같은기간 4천8백16건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처방전발행실적이 크게 늘어난것은 지난 7일 金正禮보사부장관이 木浦市약사회와 의사회를 방문한데 이어 2종의료보험간담회에서 완전의약분업을 요구하는 약사들에게 금년상반기 까지 처방전발행이 정상화될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계속 처방전 발급이 저조할경우에는 한층더 강력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것이 계기가 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에따라 약사회측에서는 처방빈도가 높은 의약품목을 제약회사로부터 배정받아 약국에 긴급비치하는등 수용태세를 정비하고있다。

한편 보사부는 앞으로 2종지역의 의사와 약사들이국민건강이란 높은차원을 위해 양쪽이 조금씩 양보토록 행정적으로유도, 2종보험의조기정착을 계속추진해 나갈방침이다。

상습賃金滯拂 회사代表구속

노동부水原지방사무소는22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경기松炭市영풍실업주식회사 대표 李우면씨(30)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의하면 李씨는 지난해 9월1일 섬유제품제조업체인 이회사를 인수한뒤 1개월뒤인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자 80명의 3개월분임금 1천5백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또 근로자 1백58명의 재형저축금 3백11만여원을 멋대로 해약, 회사운영비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滿醉절도범에 無罪

서울地法항소부 "犯行당시 自制능력없어"

절도전과2범인 50대남자가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으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韓景國부장판사)는 22일 崔萬亨피고인(53·무직·서울九老區梧柳洞14의96)에 대한 절도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崔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崔피고인은 지난해 7월24일 밤9시반께 서울역매표구앞에서 부산행특급열차표를 사려고 서있던 裵모여인(30·서울江西區禾谷洞)의 가방을 훔치기한 혐의로 철도공안원에게 붙잡혀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돼 사물을 판별하거나 자기의사를 통제할만한 능력이없는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崔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것은 잘못』이라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근거없이 豫算지출한 漢醫師協 회장에 辭職권고

보사부는 22일 예산의 일부를 근거 없이 지출한 대한한의사협회에대해 회장등 관계임원의 사직을 권고, 오는 2월4일까지 그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보사부에 의하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81년 감사에서 예산중 9백66만원이 근거없이 지출된것으로 밝혀져 임원진으로하여금 변상토록 지시했으나 이들은 회원들에게 별도 찬조금을 거두어 눈가림식으로 충당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지난 연말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것。

그러나 한의사측은『금전지불능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장의 지불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내세워 정당하게 쓰여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한국일보 533·2361

고장 蘇첩보위성「코스모스」 延世大 천문대서 觀測성공

23·24일 양일중 지구에추락할것으로 예상되는 소련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가 우리나라 천체관측팀에의해 관측됐다。

延世大천문대 일산관측소관측팀(팀장 羅逸星교수)은 20일 하오7시30분23초 북극밑에서 나타나 북동쪽 지평선으로 사라져가는 코스모스위성을 30초동안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일주일전부터 코스모스위성관측을 시작해온 관측팀은 1시간30분 주기로 지구를돌고 있는 이위성을 50㎜니콘 F1·4카메라로 촬영, 그 궤적을 사진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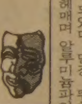
鳥人의 꿈

2천4백여번 날은 白埈欽씨

하늘을 마음대로 날고 싶은 인류의꿈이 결실을 맺은게 비행기다。그러나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한 구석이 있다。인간은 스스로 날고 싶은 것이다。

白埈欽씨(26·사진·서울江南區三成洞115의32)는 바로 이 「구석」에 도전하는 사람중의 하나다。창공을 활개짓하며 나는 鳥人의 꿈을 키우는데 있어 한국의 파이어니어다。

白씨의 꿈은 고교3학년 시절 우연히 싹텄다。외국잡지에서 본 글라이더맨의 멋진 모습에 자신의 얼굴이 오버랩 되었다。당장 뛰쳐나가 清溪川을 헤매며 알루미늄파이프와 군용 우의를 구해다 글라이더를 만들었다。



永東의 작은 야산에 올라가 1백m를 활공할수 있었다。지금 생각하면 전문적인 제작방법도 모른채 조잡하게 만든 글라이더에 매달려 나는 흉내를냈으니 아찔한 추억이다。그러나 이순간은 그의 꿈을 평생의것으로 확정한 순간이라 한다。

최초의 비행에 白씨는 자신을 얻었다。같은 꿈을 좇는 동호인들을 찾아나서 우선 76년 3명의 회원으로 鳥人會를 만들었다。모험은 인생의 진수라고 생각하는 그는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헹글라이더를 메고 기구를 타고 올라가활공하는 기구비행도 시도했고 또성공했다。

77년 늦가을 해발 1950m의 漢拏山정상에서의 활공은 그의 경력중 최고의 클라이맥스라 할수 있었다。

그뒤 雪嶽山 冠岳山 白雲臺등에서 9년동안 2천4백여번이나 날았다。지난해 경력5년이상의 헹글라이더맨 6명을모아 블랙이글이란 준 프로팀까지 만든 白씨는 금년11월로 예정된 일본 후지산원정을 준비하느라 바쁘다。팀의 최종목표는 북미 최고봉인 매켄리정상에서 날아보는것。

"헹글라이딩은 自然에 안기는것"

가능성을 향한 끝없는 도전을신조로하는 그에게도 좌절의 순간은 있었다。

고교때 단짝이던 柳炳濟군(당시18세)이 汝矣島광장에서 달리는차에서 날다 그의 눈앞에서 숨져갔던것。

『헹글라이딩은 결코자연에의도전이 아닙니다。자연의 품에안기는 의식일뿐입니다』자연을 깔보지 말라고충고하는 白씨는 헹기방장한청년으로 보이질않았다。【韓基華기자】

"88올림픽開幕때 비둘기 날릴수 있다"

학교·가정에 分讓사육

2萬마리 目標

◇「올림픽 비둘기」를… 제주도에서 경기 高陽郡元興里의 사육장까지 어김없이 날아오는 영민한 전서구들에게 李교수가 콩을 뿌려주고있다。

傳書鳩 2백50여마리 키우는 李陽熙교수

88올림픽때 개막식장 상공을 날며 원무(圓舞)를 그릴 비둘기의 꿈이 한 대학교수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서울明知대학 李陽熙교수(47·식품공학、섬약가)。李교수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유치한 우리나라가 개막식때 날릴 비둘기가 최소한 2만마리는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방법에 고심하다 자신이 기르고있는 전서구(傳書鳩) 2백50마리를 바탕으로 사육계획을 세운것。李교수계획에 따르면『앞으로 3~5년동안 서울시내 각급학교와 뜻있는 가정에서 자신이 분양해주는 전서구를 성심껏 키우기만하면 올림픽개막식을 너끈히 치를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레이스비둘기회를 조직, 스스로 회장직을 맡고있는 李교수는 자기집인 경기 高陽郡元興里앞마당에서 전서구를 기르고있다。전서구는 보통 집비둘기와 달라 힘이세고 영리하며 귀소성이 강한게 장점。

때문에 제주도에서 날려도 元興里까지 날아오는데 귀소율이 95%이상이다。

이같은 계획을 세운 李교수는 지난여름 서울시내 전국민학교에 협조공문을발송, 비둘기분양신청을 받고있다。李교수가 국민학교와 시민들에게 협조요청을 내는 것은 비둘기를 집단사육할경우 집단발병으로 떼죽음을 당할염려가 있으며 사료문제가 수월스럽게 해결되기때문이다。

李교수로부터 비둘기를 분양받은 서울 미양국민학교어린이들은 비둘기회를 구성, 비둘기를 훈련、사육시키고있고 날이 풀리면 강원도의 자매국민학교 어린이들과 우정의 서신을 이 비둘기편에 띄워보낼 계획이다。

비둘기를 가정과 학교에 분양하는 것은 올림픽用 비둘기를 확보하는 방안이기에 앞서 시민들의 향토애와 자연보호정신을 함양하는 길도 될 것이라고 李교수는 말한다。

기르는 비둘기는 방안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값비싼 가금과는 달리 주인집을 떠나지 않으며 마을의 새로써 지역주민전체의 사랑을 받을수있는 새라는 것이다。李교수는 자신이 훈련시킨

이 비둘기들을 차출분양、계속 번식시키는 한편 올림픽전까지 각가정、국민학교등에 1~2쌍씩 분양시키고 비둘기회 회원들이 사육과 훈련을 지도할 계획인데、서울시는 이레이스비둘기 분양계획을 적극지원해서 올림픽때 사용하고、모자라는 숫자는 어린이대공원、시청옥상등의 비둘기를 번식시켜 충당키로했다。

이에따라 레이스비둘기를 분양받은 가정들은 집에서기른 비둘기를 경기장에 보내 날아가게함으로써 올림픽에「참가」하게되고 이 비둘기는 경기장에서의 원무를마친후 다시 주인집으로 날아오게된다。

이 귀소성 높은 영민한 비둘기의 후예들이 올림픽경기장을 뒤덮게되면 비둘기들은 개막식후에도 산으로 날아가 매의 밥이되거나 굶어죽지않고、도심의 골목과 각가정의 뜨락에서 시민이 주는 모이를 먹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비둘기가 될것이다。

李교수는 지난 70년초 프랑스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프랑스의 전원이나 도심에서 사람과 비둘기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平和동네를 서울에서 재현하기 위해 한국 레이스비둘기회를 조직했었다。

"올림픽은 政府만의 行事아니다 汎국민 캠페인 바람직"

李교수는 올림픽은 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쌍의 비둘기를 길러주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하고있다。【朴榮基기자】

全南大 사범대학 新入生 신체검사때

여학생上衣벗겨 말썽

【光州】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이 올해입학지원자 신체검사를하면서 일부여학생들의 상체를 벗긴사실이밝혀져 지원자들과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대학당국은 지난15일부터 18일까지 전남대학생회관 2층의 학생보건진료소에서 사범대 19개과 지원자 2천28명(남9백22·여1천1백6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남녀별로 실시하면서 이상이있는 일부 여학생들을 커튼이 쳐져있는 피부과로 데리고가 상의를벗기고 정밀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들 여학생들은 피부과에서 2명의 남자의사들로 부터 약2분간씩 피부질환검사를 받았는데 학부모들은 남자의사들 앞에서 상의를 벗게한것은 상상못할 비교육적 처사라고 항의하고있다。

학부모 金모씨(52·光州市西區芳林洞)는『여학생들의 정밀신체검사가 불가피 하다면 여의사가 검사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비교육적인 처사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聯合】

不具이유入學불허

朝鮮大 "실험실습 감당못해"

【光州】소아마비로 불구가된 고교졸업생이 재수끝에대학입시 시험에합격했으나 불구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자 22일 각계에 대책을 호소했다。

83학년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 응시한 金龍學군(20·光州市東區山水2洞560의31)은 학력고사 점수 2백67점(내신성적 6등급)을 얻어 합격선에 들었으나 신체검사에서 양쪽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불구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는것。

金군은 1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되지않아 9살때 국민학교 2학년에 바로 입학한뒤 어머니林俊姬씨(45)의 도움으로 휠체어를타고 조대부고 2학년때까지 다녔다。2학년때 여름방학때 서울에서 두번대수술을받아 목발을 짚고 걷게됐으며 이후 3층계단까지를 오르내리며 무사히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쳤다。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이같은 불구의 몸으로 결석한번하지않은 金군은 지난82학년도에 전남대 약학과에 응시했으나 실패한뒤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다。【聯合】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麻醉잘못 死境헤매

얼굴 成形수술받던 간호원 全身마비

얼굴성형수술을받던 간호원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전신이 마비돼 사경을 헤메고있다。

지난해 12월6일 서울江南區論峴洞 李모외과의원에서 姜明淑씨(26·순천향병원간호원)가 원장 李씨의 요청을받고온 永登浦S병원마취과의사 金모씨(32·여)의 전신마취주사를맞은다음 얼굴의 여드름자국과 입술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받았다。

원장 李씨에 의하면 수술이 거의 끝날무렵 姜양의 입술색깔이 갑자기 이상해져 산소공급튜브를 살펴보니 튜브가 구부러져 있었다는것。

姜양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의사들은 바로 심장마사지와 혈압상승제 주사를 놓았으나 姜양이 의식을 찾지못하자 高麗대부속병원으로 옮겼다。

姜양의 가족들은 姜양이 회복을 못하자 같은달 14일 서울龍山區漢南洞 순천향병원으로 옮겼는데 姜양은 약1주일전부터 의식은 조금찾았으나 22일현재까지 전신이마비된상태로 몸을 전혀움직이지 못하고있다。

姜양의어머니 朴貞子씨(49·강원春川市校洞25의11)에 의하면 지난해12월25일 수술을했던 의사李씨가 병원으로찾아와『마취가 완전히 깨지않은 상태에서 해독제주사를 놓고 산소튜브를 제거했다』고 울면서 말했다는것。

한편 가족들의 고소에따라 수사에 나선 서울江南경찰서는 마취의사 金씨가 姜양을 전신마취한뒤 산소공급 튜브를 입에다 꽂을때 꺾어진 튜브를 모르고 지나쳐 환자는 산소공급 중단과함께 뇌에 치명적 영향을 받은것으로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있다。

경찰은 마취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시인한 金씨와 원장 李씨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개인택시 免許는 競賣대상 안된다"

大法、移轉못한 競落者에 敗訴판결

대법원 민사부는 22일여자택시운전사 徐順女씨(40·서울城東區金湖洞4街108의2)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개인택시 면허는 경매대상이될수없으므로 개인 택시를 법원의경매로 사들였더라도 차체만 경락된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徐씨는 지난80년7월 서울민사지법이 실시한 서울2바5423호 개인택시를 7백30만원에응찰、경락받은후 서울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신청을냈으나 시당국이『개인택시 사업면허는 경매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徐씨는 소장에서『개인택시는 사고 팔때 차체와 면허가 동시에 거래되는것이 관행이며 개인면허가 경매대상이 아니고 양도도 되지않는다면 싯가 7만원밖에 되지않는 고물차체만을 7백30만원에 주고 살리가있느냐』고 주장、원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母子숨져

後進버스에 치여

【光州】21일 낮12시50분께 전남莞島郡莞島邑郡內里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광주고속소속 전남5아8164호 직행시외버스(운전사 崔圭玉·35)가 후진을하다가 버스를 타기위해 대기중이던 金賢子씨(38·여·충북清原郡北二面주항리)와 6세가량된 金씨의 아들등 2명을치어 숨지게했다。【聯合】

浦項~울릉도 뱃길 운항中止 5일째

【浦項】浦項·鬱陵島간을운항하는 정기여객선 한일호와 청룡호가 연5일째높은 파도로 운항을못해 관광객과 주민 5만여명이 울릉도와 浦項여관등지에서 발이 묶여있다。【聯合】

日 최우수棋士에 趙治勳名人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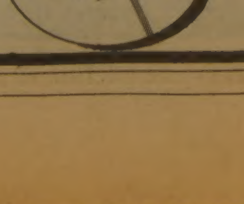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의 신문、TV의 바둑기자들로 구성된 棋道賞선정위원회는 趙治勳名人·本因坊·十段을 21일 최우수 기사로 선정했다。

Mont Tremblant

제2회 스키강습회

마감박두!

몽·트랑브랑 스키장
〈적설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합장소 : 브랜든·스포츠사 (337 Bloor St. W.)
※집합시간 : 28일(금) 오후5시30분까지 (좌석이 4석만 남았으므로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533—2361, 598—3732 928—3335

토론토한국일보사·한인스키협회

경기단체 企業人회장-競技人
잇단內紛 막을수 있다

83년벽두 국내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한 화제는 일부경기종목 기업인출신 회장과 경기인들간의 불협화음이었다. 대한 육상경기연맹 張翼龍회장과 대의원들간에 있었던 마찰은 양측이 서로 일보 후퇴를 선언함으로써 파국직전에 수습됐으나 이것으로 양측의 갈등이 완전해소되었다고보기는 어렵다. 기업인과 경기인의 마찰은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터질것으로 보였던「시한폭탄」이었다.

과거 정치인들이 주도해왔던 각경기단체에 재력있고 박력넘치는 기업인들이 영입됨으로써 스포츠단체들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경기력향상에 공헌했으나 일부 기업인출신 회장들은 경기단체운영을 자신의 기업의 연장으로 착각, 경기인들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경기단체와 관련을 맺은뒤 한 인사들을 주기도 했다. 경기인 출신 일부 임원들의 태도 역시 석연치 않았다. 구태의연한 파벌싸움에 말려 기업인들을 나무에 올려놓고 마구 흔들어 물의를 빚는가하면 대의원들의 집행부구성 권한을 악용,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86년 아시아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단체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기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인회장단과 스포츠계 일선에서 뛰는 경기인들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기인들은 거액을 투자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하고, 기업인출신 회장들도 내가회장이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독선을 버리고「스포츠에는 경기인이 우선」이라는 발전밑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하겠다.

기업인출신 회장이 바라는 이상적인 경기인상(像), 경기인이 바라는 회장의 모습은 어떤것일까. 모범적으로 스포츠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한탁구협회 崔元碩회장, 강직한 성품의 순수경기인 朴象圭씨 (대한야구협회 이사)의 견해를 들어본다.

이런競技人을 바란다

흐트러진 정신력이 癌
한눈 팔지말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리자

崔元碩 <탁구협회회장>

지금은 中共이 세계탁구를 독주하고있지만 60년대 이전에는 日本이 오늘날의 中共처럼 왕좌를 차지한적이 있었다. 그日本이 81년 4월 유고에서열렸던 노비사드대회를 마지막으로 세계선수권 타이틀 유지기록에 종지부를 찍고말았다. 그전까지 27년동안 日本은 7개종목을 석권하기도 했고 때로는 1개종목에서 우승을 따내 타이틀기록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단 1개의 종목에서도 타이틀을 따내지못해 탁구왕국이란 자부심이 막을내렸던 노비사드대회이후 오기무라(荻村) 日本탁구협회전무이사는 일본탁구를 자평한 일이있다. 그는 日本이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고있으면서도 해가 거듭될수록 뒤지기만하는 자국팀의 전력을개탄했다. 그가말한 日本의 유리한 조건중 기억에남는것은 다음과같다. ①충분한 경제력이 있다. ②정보전달의 수단과 스포츠용구가월등하다. ③열성적인 체육지도자의 수가많다. ④스포츠과학, 특히동작분석등의 이론과 수단이 월등하다. ⑤교통수단과 제반 시설이 앞서있다. ⑥타인의 장점을 채택한다는데 구애받지않는 민족성 ⑦성실하고 투지가 강하며교육이 높다. 이상 그가 열거한 사항들을 듣고나서 나는 오기무라씨에게 현대스포츠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있는 日本이 中共에 왕좌를 빼앗긴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적이있다.

그는『한마디로 정신력 때문이다. 풍요로운 환경속에 젖어있는 日本의 젊은이들은「헝그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 세계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것이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中共은 세계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있으면서도 겨울에는 섭씨영하15도의 추운지방에서 내한 훈련을, 그리고 여름에는 섭씨45도의 내륙고 사막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하여 강인한 정신력을 기른다』는등 자신이 직접中共을 방문해서 목격했던사례를 들려주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와 선수등 체육인들의 처우개선과 생계보장을 위해 그어느때보다도 관심을 쏟고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없었던 훈장, 병역특혜등의 대우를 받고있으며 올림픽 유치 이후에는 스포츠 과학화에 대한 열의도 고조되어가고 있다.

늦게나마 체육진흥을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음은 다행스런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체육의 주체인 스포츠맨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시설과 용구를 탓하고 지도자들이 생계를 걱정할때마다 나는 오기무라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되살아나곤 한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암흑속에서 한치의 오차없이 떡을 썰어 자식을 깨우친 이야기는 오늘날의 체육인들이 항상 스스로 채찍질하고 정신력의 분발을 촉구하는 교훈으로 되새겨야 할것이다.

경제인이 대부분 맡고있는 경기단체장들은 그들나름대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지금보다는 더욱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수·지도자등 경기인들은 주위의 여건만 탓할것이 아니고 불굴의 투지와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쏠려있는 모든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려는 사명의식을 마음속깊이 새겨서 실력향상에 혼신의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후배양성 의욕과 노력,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면서 항상 연구하는 경기인, 스포츠를 아끼고 육성하려는 사회의 관심이 한데 뭉친다면 한국스포츠의 장래는 밝을것이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게된 스포츠강국으로서의 명예를 높일 수 있을것이다.

이런 會長을 바란다

경제인侍女가 돼서야
「算術놀음」그만두고 서로 영원한同伴者로

朴象圭 <야구협회전무>

지난 수년내 우리체육계에는 새로운 물결이 불려왔다. 기업인들의 진출이 그것이다. 그결과 30여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중 4~5단체를 빼고는 모두 기업인을 회장으로 추대, 예전에비해 풍족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내가 종사하고 있는 야구협회의 경우에는 팬들이 도와준 입장수입으로 별반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왔지만 살림에 쪼들리던 경기단체들은 기업인들의 참여로 새세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뉴델리아시아게임 3위입상이라든가, 세계야구대회, 국제오픈탁구등 국제적인 행사들을 성공리에 치룰수있었던 이면에는 거액의 운영비를 쾌척한 기업인들의 역할이 큰 몫을 했음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운 일이다. 기업인과 체육인, 어찌보면 이질적인 별개체로도 느껴지지만 스포츠 프로그램이 국제화되고있는 현싯점에서 기업인의 참여는필요 불가결한일이되고있다.

얼마전부터 체육인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한『나는 봉이 아니요』라는 해학적인 어귀를 들을때마다 나는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이말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의 속마음을 대변하는것 같다. 뒤집어 생각하면『봉이 되기 싫다』는 말에는 결코 댓가가 없는 일은 할수 없다는 기업인의 강한신념과 체육인에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는듯 싶다.

투자심리는 투자에 대한 소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적극성을 띤다. 스포츠도 투자만큼 결실을 가져오는 솔직한 사업이다. 그러나 선수들의 해외원정이나 국제대회파견에 있어서 주판알로 성과를통겨본후 결정하는 일부기업인 회장들의 태도는 어떻게받아들여야 할것인가.

어떤 체육인은 스포츠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기대한 이상의 댓가를 얻어갔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업주로서 얻는 명예, 소득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얻는 稅制上의 혜택등을생각하면 그리 생색낼게없다는 얘기다.

기업인과 체육인의 관계는 절대「강요」와「구걸」의 관계가 될수없다.

우리는 스포츠팬으로서의 기업인을 원한다. 팬들이 입장료로 스포츠를키워주듯이 거액의 입장료를내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표시한는그런기업인을바란다.

투자만큼 소득을 얻어내는 것이「컴퓨터 기업인」이지만 긴안목으로 다음세대에서라도 결실을 맺어보겠다는 진정한 스포츠애호가를회장으로모시고싶다.

스포츠계가 지난날 정치인의 侍女가 된적이 있지만 경제인의 侍女가되지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물론 우리경기인도 더많은것을 반성해야 함을 머리숙여 인정한다.

기업인과의 사이에서 스포츠이외의 메리트를 기대하는 사이비스포츠인이 존재함을 부끄러이 여기며 분수이상의 것을 노린 경기인들의 잘못을 통감한다.

돈만 많이내면 최상의기여라고 생각하던 기업인이나, 무조건 돈만을 요구하던 경기인이나 모두 냉정히 반성할 시간을갖자.

시대는우리가영원한동반자가될것을요구하고있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경기장에서는 백년친구가 될수 있는 자세를갖추자.

「無敵함대」太平洋 침몰
朴賛淑 종료8초전 자유투1개 不發
洪惠蘭 쓰라린告別戰…「終了골인」인정안돼
코오롱에 60-59

◇후반에 奇蹟이… 무적 太平洋의 아성은 코오롱에 의해 무너졌다. 太平洋化學의 洪英順(10번)이 코오롱의 金福順(14번), 禹恩京(9번)의 마크를 뚫고 점프슛을 날리고있다.

불침함 太平洋이 침몰했다.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37회 전국남녀 종합농구선수권대회 8일째 여자부 준결승전에서 太平洋化學은 투지의 코오롱에 60-59로발목을 잡혀 패했다.

太平洋이 대표선수가 출전한 게임에서 패퇴한것은 이번이 네번째.

78년2월 朴賛淑을 스카우트한 太平洋은 78년 大田종별선수권대회에서 朝興銀行에, 79년 大邱종별선수권대회와 81년 추계연맹전서 각각 라이벌 韓國化粧品에 패한바 있다. 太平洋은 대표선수들이 뛴 대회때마다 우승을 독점, 이제까지 22개대회서 우승을 차지했었다.

이날 太平洋은 기둥인 朴賛淑을 비롯, 權明嬉 車仙鈴이 크게 부진, 洪英順의 외곽슛으로 코오롱과 대적하기에는 힘이 벅찼다. 太平洋은 연장종료 8초를남기고 朴賛淑이 프리드로우를 얻었으나 1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해 60-59로 무릎을 꿇었다.

한편 남자부 리그서 企業銀行은 韓國銀行을 78-66으로 제압, 3승2패로 3위를 차지했으며 韓國銀行은 2승3패로 최하위가 됐다.

產業銀行은 國民大를 75-73으로 물리쳐 1승4패로 최하위를 모면했다.

코오롱의 기적은 후반 2-3 매치업 존을 쓰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가대표가 4명이나 끼어있는 太平洋은 洪英順을 제외한 나머지주전들이 크게부진한데다 朴賛淑은 金福順 禹恩京 田淑등에 철저히 마크당해 숏이 불발했다. 코오롱은 田淑 金福順의 숏이 터지면서 열띤 추격을 벌여 후반11분께 田淑의 숏으로 44-44 타이를 만든후 두팀은 한골차의 치열한 공방을벌인끝에 52-52 타이가되어 연장전에 들어갔다. 연장서 코오롱은 田淑 金福順을 내세워, 太平洋은 朴賛淑의활약으로 일진일퇴를 계속했는데 경기종료 28초를 남기고 金福順이 朴賛淑의 파울로얻은 2개의 프리드로우를 모두 성공시켜 결승점을 만들었다. 太平洋도 8초를남기고 朴賛淑이 프리드로우 2개를얻었으나 1개밖에 성공하지못했다.

이번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太平洋의 洪惠蘭은 후반종료 종성과함께 중거리 숏을 날렸으나 골인으로 인정받지못해 쓰라린 고별전이 되었다.

◇제8일전적

▲남자부 리그

기업은행 (3승2패)	78	42-36, 36-30	66	한국은행 (2승3패)
산업은행 (1승4패)	75	28-45, 47-28	73	국민대 (5패)

▲여자부준결승

코오롱	60	26-18, 26-34, 8-7 (연장)	59	태평양화학

구독신청·광고 533-2361

아이스하키
高大、延大에 역전勝

지난해 4관왕인 高麗大는 금년도 첫아이스하키 延高戰에서 8-5로 역전승, 2승을 기록함으로써 제8회 KBS盃쟁탈 아이스하키 대회 정상에 다가섰다.

21일 東大門 실내링크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경기서 高麗大는 金聖勳(3골) 韓仁燮(2골)등의 맹활약으로 초반에 리드를잡고 8-5로 승리했다.

光云大는 慶熙大를 6-5로 물리쳐 1승1패가 됐다.

◇제2일 전적

고려대 (2승)	8	3-3, 1-1, 4-1	5	연세대 (1승1패)
광운대 (1승1패)	6	2-1, 3-2, 1-2	5	경희대 (2패)

회장盃스키
金振海 종합優勝
여 5 km 女高生 金貞玉패권

【龍平=金仁槇기자】제13회 회장배쟁탈 스키대회가 국가대표급선수들을 포함, 알파인62명, 노르딕49명등 총 백11명이 참가한가운데 22일 龍平스키장과 內車項 슬로프에서 열렸다.

이날 실버라인에서 벌어진 알파인 대회전경기 (9백m)에서는 국가대표 金振海 (21·단국대3년)가 1분43초58로 우승을차지했고 여자부대회전 (7백m)에서는 朴明淑 (21·국민대3년)이 51초84로 1위가 됐다. 남자부에서 우승한 金振海는 지난 연말 프랑스의 새로운 주법을익히고 돌아온 스키천재로 이날 1회전에서 52초93의 부진한기록을 보였으나 2회전에서 50초65의 좋은기록을보였다.

金과함께 전지훈련을 다녀온 崔炳鎬 (단국대)는 1분44초31로 3위를 마크했고 2월13일 열리는 제1회 太平洋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될 朴炳鎬 (경희대)는 1회전서 51초75를 마크, 기대를 모았으나 2회전서 넘어져 탈락했다.

한편 內車項슬로프에서 벌어진 노르딕 남자15km거리경기서는 국가대표 洪根杓 (국민대)가 47분43초로 우승했으며 48분31초를기록한 金東煥 (단국대)이 2위를 차지했다.

여자5km거리 경기서는 金貞玉 (영동여고)이 29분23초를 마크, 대학의 金在順 (단국대·29분52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趙庭民회장 유임
대한볼링협회

대한볼링협회는 22일 대의원총회를열고 趙庭民회장(라이프그룹부회장)을 유임시키는한편 제2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7월·호주)와 제10회세계선수권대회 (11월·베네수엘라) 참가를확정하고 6천2백60만원의 올해예산을 확정했다.

日 棋界수입 3년째 1位
趙治勳名人 작년에 6천1백58萬엔

【東京=丁萬기자】趙治勳名人이 일본 棋界에서 3년째 상금·대국료 톱을 고수하고 있다. 13~14일의 棋聖戰 제1국 개국을 계기로 일본 주간지「碁」가 조사한 82년도 고소득 베스트10」에 따르면 趙治勳名人은 지난 한해동안 6천1백58만엔의 수입을 올려 4천5백여만엔의 수입을 올린 81년에 이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趙名人은 지난해 本因坊名人을 방어하고 十段타이틀을 새로이 쟁취했으며 棋聖戰 도전자가 되었다. 또 TV대국인 鶴聖戰, 秀哉杯에서 우승하는등 제1인자의 관록을 과시했다. 趙名人의 수입은 순수한 상금과 대국료만을 계산한 것이어서 지도대국료·인세·휘호고료등을 합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棋聖戰도전 7번기에서 승리, 상금액1위 棋聖位를 추가하고 名人 本因坊을 방어하면 83년도 상금·대국료는 8천만엔정도로 늘어나 기타수입을 합산할경우 일본기원사상 첫 수입 1억엔 (3억3천만원) 돌파 기사가 될것으로 보인다.

◇趙治勳

趙名人의 지난해수입 6천여만엔은 일본 프로야구 톱·클래스 선수의 연봉에 버금가는 큰 액수다.

趙名人은 지난해 最多勝부문에서는 34승13패로 2위에, 승률은 0·723으로 5위를 기록했으며 수입에서는 2위의 후지사와 (藤澤秀行) 棋聖의 3천1백여만엔보다 2배가 많았다.

2위의 藤澤秀行은 棋聖방어에서 큰 상금을 받았는데 81년에 비해서는 34만엔이 늘어난 수입이다.

오오다께 (大竹英雄) 碁聖은 81년의 3천4백여만엔에서 82년에는 2천4백여만엔으로 줄었으나 名人戰도전자가 됐고 碁聖戰을 방어해서 3위에 올랐다. 현상유지에 그친 셈이다.

고바야시 (小林光一) 9단은 2천4백여만엔으로 81년도보다 한등급 올라섰다. 本因坊도전과 그밖의 棋戰에서 활약, 4위에 오른것이다. 5위는 2천여만엔의 가또 (加藤正夫) 가차지.

林海峰, 다께미야 (武宮正樹), 사까다 (坂田榮男) 9단등은 수년간 6·7·8위 다툼을 해왔는데 82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81년 9위였던 이시다 (石田芳夫) 9단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대신 베스트10에 들지 못했던 羽根9단이 9위에랭크됐다. 羽根9단은 각段戰에서의 우승, 전단쟁패전, 棋聖戰에서거둔 수입과 名人리그전수입으로 베스트10에든것이다.

10위의 片岡聰 7단은 82년 활약이 두드러졌던 젊은기사. 天元位를 쟁취한 것을 비롯해 신인왕전우승, 승단전에서의 승단등으로 기라성같은 9단진을 제치고 10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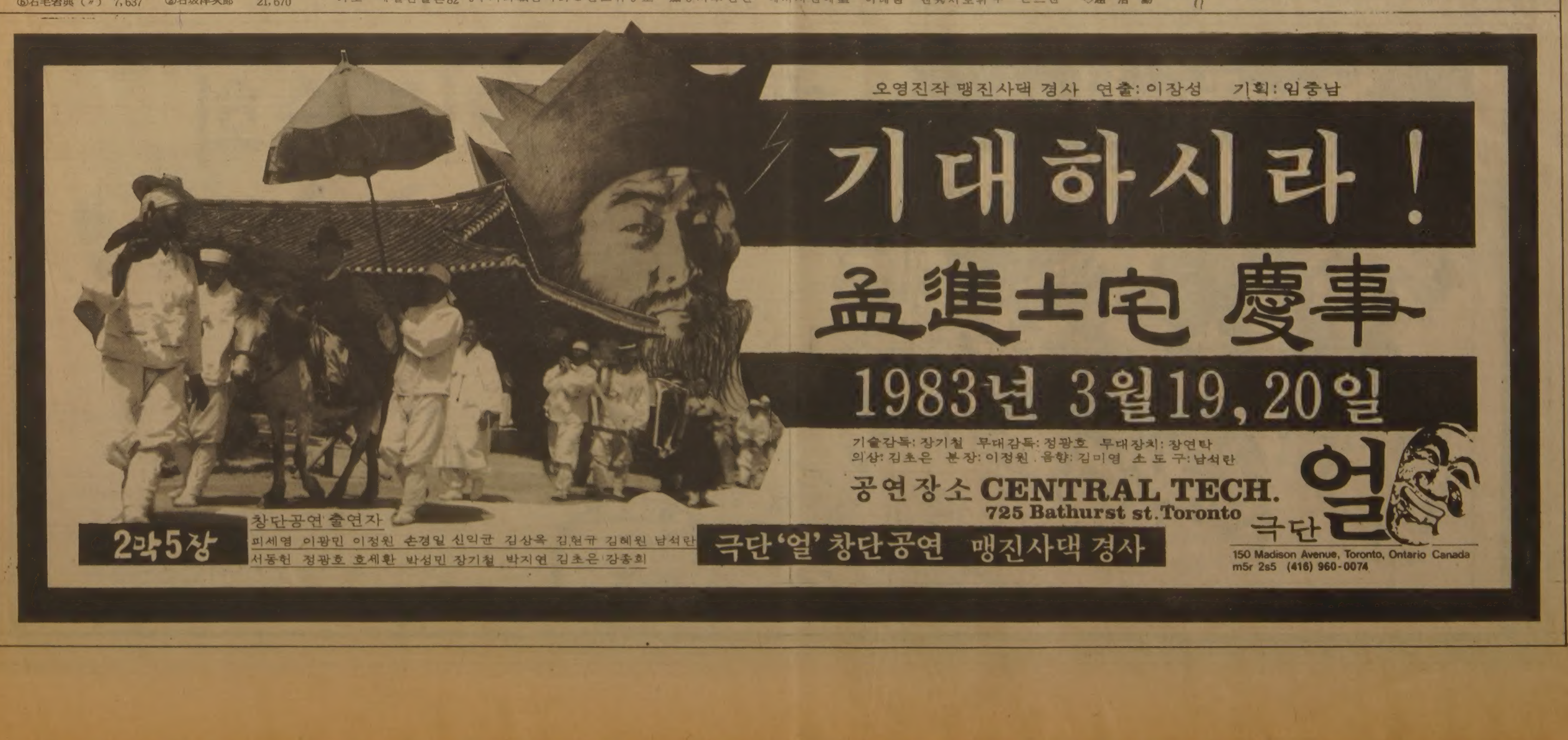
베스트10의 상금만 보아도 82년은 趙治勳 名人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棋士수입明細
(82년 賞金·對局料 베스트10·단위 万엔)

①趙 治勳名人	6,158
②藤澤秀行棋聖	3,155
③大竹英雄碁聖	2,471
④小林光一九段	2,402
⑤加藤正夫天元	2,088
⑥林 海峰九段	2,074
⑦武宮正樹九段	1,520
⑧坂田榮男九段	1,308
⑨羽根泰正九段	1,093
⑩片岡 聰七段	609

◇各界소득랭킹
(81년기준)

◇作 家	
①司馬遼太郎	29,193
②石坂洋次郎	21,670
③西村壽行	18,746
④松本清張	17,853
⑤横溝正史	14,582
◇俳 優	
①黑柳徹子	19,910
②渥美 清	12,866
③大川橋藏	12,595
④石原裕次郎	12,381
⑤森光子	11,278
◇가 수	
①五木히로시	10,987
②谷村新司	10,138
③이루까	8,051
④長渕剛	7,851
⑤村田英雄	7,663
◇프로운동선수	
①青木功 (골프)	13,041
②原辰德 (야구)	11,737
③千代 富士(씨름)	7,887
④王貞治 (야구)	7,817
⑤石毛宏典 (〃)	7,637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계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저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Grade 7에 재학중인 성적좋은 학생임. 높은 Level의 영어, 수학 가르쳐 주실분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921-4466, (R)291-0117 Mr. 신

시외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 1-(705)-458-4326

Tavern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491-9058

급구: ◉도넛츠공장 맡아서 운영하실분
(판로가 있음)
◉도넛츠 숍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Weston 지역과 Finch 지역)
◉도넛츠 숍 메니저 구함.
전화 : 665-0790(낮) 731-1641(저녁) Mr.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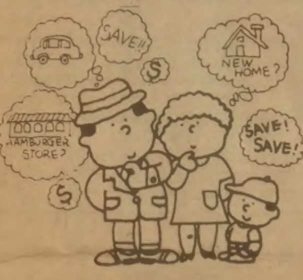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주실분
(Markham & Sheppard)
전화 : 284-3031 Mrs. 성

Kitchen Helper 구함.
5304 Yonge St.(영 남쪽, Finch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오후4시 이후), 826-7676(오후6시 이후)

한국요리사,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Restaurant Kogil Kwan
한식요리사 1명, 일식요리사 1명, 중식요리사 1명. 10년이상 경력및 자격증 요함. 전화 : 532-7421 Mr. or Mrs. 장

5일에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가게 급매.
리스: 3년+옵션. 아스킹: $8,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Ralf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389-9755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산지 14개월)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주매상: 약 1만불의 도넛숍.
권리금: 33만불. 리스: 26년
◉주매상: 약 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3만9천.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가능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636-169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 division of SFZ International. Ltd.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D"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1Bed Rm. 방세 놓습니다.(부엌 포함)
월: $200.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Mr. 김) 오후1시~밤10시사이 전화 요.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호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